

“집무실앞마당어린이에내주겠다”,윤석열대통령, 용산시대1호약속지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 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 SOFA협상을 거쳐 부분 반환된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시켜,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초청된 어린이가족과 일반국민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공원공간을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3월에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정원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으며, 대통령실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가꾸고 국민과의

소통 접점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어린이정원의 개방을 축하하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잔디밭과 주변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대통령으로서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축사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 참가자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페이스 페인팅, 마술쇼 등 준비된 공연을 관람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이후, 정원 내 위치한 전망언덕을 찾아 정원 개방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가졌다. 식수목은 애국가 속 나무이자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무인 소나무로 선정됐다.

최광수/기자



질병관리청,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

2022.12.9

호흡기질환, 어떻게 예방할 건가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네 가지 수칙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시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올바른 기침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주세요!

경북도, “아버이 고귀한 사랑!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51회 경상북도 아버지날 기념행사 개최

경북도는 4일 영천 생활체육관에서 “아버이 고귀한 사랑!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51회 아버지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이만희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도의원, 어르신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표창, 축사와 함께 영천YMCA 어린이합창단의 ‘아버이 은혜’합창과 ‘백세, 경북의 힘’이란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식후에는 삼계탕과 떡, 과일 등 정성으로 마련한 ‘효도상’을 대접함으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7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시모를 22년간 모신 효행자, 뇌질환 시부와 치매 시모를 27년간 봉양한 효행자 등 효를 실천한 민간인과 효행 유공 공무원 12명(보건복지부 장관상 2, 도지사상 10)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한편, 경북도는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함께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밀반찬 지원사업, 경북의 특화사업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또 백세시대에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5만5천개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 성공과 발전의 대동보 역할을 해 오신 경북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경로과 지혜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에서도 어르신 내 부모님같이 섬기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밝혀

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 국가’가 되어서

는 안 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내준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조혜영/기자

김동연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그 아래엔 삶이 영그는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영양군의회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다!

- 정치권,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펴뒀·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아야
-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 대구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5월 4일(목)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펴뒀과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유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만규 의장은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보도는 대구·경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탄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 후,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민 앞에 약속하는 것으로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공평항 수산물센터 현장 방문 및 민간환경감시단 간담회 개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오순)는 지난 4일, 공평항 수산물센터 현장방문 및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민간환경감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 부위원장, 공영애, 배정수, 장철규, 차순임 의원과 관련 집행부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공평항 수산물센터의 올해 계획된 리모델링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관계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장안대교)을 방문하여 남양호 수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과의 간담회에서 감시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조오순 위원장과 위원들은 "공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는 물론, 입점상인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하고, 감시단의 애로사항 해결 및 처우개선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시현/기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의원,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성명 발표



지난 3월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자행했다.

그로부터 35일이 흐른 지난 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14명의 독도 망언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참담할 지경이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일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독도)

상륙이 강행했다"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취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나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도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한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이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독도 방문을)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치는 외교부의 원론적인 입장표명만 있을 뿐이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반응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일본 방문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독도침탈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의 영도보전에 관한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관식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다시금 패권국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와 맞물려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으며, 마치 당장이라도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태도로 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망언을 연일 일삼는 이유는 굵직거뭇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외친다.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의 결과가 독도침탈의 야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라도 대일 굴종 외교의 잘못을 인정하고 독도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는 것만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이고, 우리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이다.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얘기하기를 바란다.

정해명/기자

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7차 정례회의, 평택시에서 개최

용인시의회 윤원균 회장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30분 평택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7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 권역 조정으로 인해 의왕시, 과천시의회가 경기도 남부권역으로 조정되어 남부



권이 8개 시의회가 되고 벌써 두 번째 정례회의를 하게 됐다. 앞으로 의장님들과 함께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

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장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조혜영/기자

인터뷰 공간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만남

인터뷰 공간은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학계 등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방문해 최근 그들의 근황과 새롭게 추진 중인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기획특집이다.

첫 번째 이야기로 충남도지사를 역임했던 전 양승조 도지사와 만남을 나누었다.

먼저 양승조 전 지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천안에서 나왔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서울에서 수학하였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6년 20대국회의원까지 내리 4선에 성공하였고 2018년 충남도지사 경선과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당선된 기쁨을 누렸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낙마하여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다 함께 잘사는 세상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양승조 전 지사에게 도지사재임

기간 중 여러 도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해 일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된 사업이 무엇인가 묻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인 아산 배방 충남 꿈비채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와 충남도민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비전을 표하는 사업으로서 재선에 성공하였을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였다고 말하였다.

정치인 양승조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혹시 2024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선부른 대답을 하는 것은 최근의 정치환경이나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심사숙고 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 까닭에 가장 가까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출마 지역을 밝힌다면 천안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사적인 질문으로 요즘 여가활동은 어떻게 지내며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묻자, 테니스 운동과 단축마라톤을 시간 날 때 마다 즐기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으며, 짬이 날때마다 독서 하는 것을 좋아해 요즘 경제에 관한 전문서적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베스트셀러 서적을 구입하여 탐독 하

고 있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공간 기획특집은 이번 양승조 전 도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미래비전과 사회공헌의 다짐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한 대담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코너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원호/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 및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추진

박현국 군수,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스마트농업 도시 봉화군"임새

※ 군민과 약속을 소중히 하며 결코 저버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 보여줘



식물들을 재배하는 기술인 스마트팜은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기후변화, 고령화, 농촌소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로봇,

형을 선정하고, 향후 조성될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함께 추진해 스마트농업인 육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농과 농업인들에게는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며, 이후 이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써, 봉화군에 보다 높은 역량을 갖춘 농업인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계획했다.

군은 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면 가만 갈수록 어려워 지는 농촌 문제인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봉화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새로운 청년 농업경영인 유입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통해 보다 높은 소득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앞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농업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농업 도시 봉화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현국 봉화군수는 시군기자단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형 영농기반 구축을 통해 농정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생산지원에 집중됐던 농업정책을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봉화를 일원에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근수기자



드론, 자율주행 등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한층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봉화군은 「미래농업, 스마트농업이 답이다」고 판단,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2025년까지 사업비 127억 원을 들여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3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이 조성할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해당 작물의 생육환경에 맞는 시설내부 조건을 조정하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개별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2세대형 스마트팜이다.

이에, 군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봉화군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시설 유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말그대로 스마트(Smart)와 팜(Farm)을 합친 합성어로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접목해 농축산물과 식품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과정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농촌 문제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봉화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현국 봉화군수도 역점시책으로 미래형 영농체계 구축을 내걸고 영농시스템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에 따르면, 봉화군은 먼저, 2024년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2000㎡(600평) 규모의

봉화군이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날 농촌은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안정된 유통라인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 유리온실과 수직농장을 갖춘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는 스마트 농업의 교육 및 실습 농장이다.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는 창업실습농장으로서 스마트 농업의 교육 및 실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 유리온실과 수직농장을 갖춘 테스트 베드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스마트농업 예비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반을 마련

기술이다.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와 습도, 햇빛량 등을 측정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봉화군,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혁신이된다!

수원시,프랑스대표관광도시투르시와자매도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투르시 방문해 엠마누엘 드니 투르시장과 협약 체결

프랑스의 대표 관광도시인 투르시(TOURS)가 수원시의 19번째 국제자매-우호도시가 됐다.

프랑스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현지 시각) '투르시 박람회 2023' 박람회장 내 공연무대에서 엠마누엘 드니(Emmanuel Denis) 투르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투르시는 도시관리, 문화예술, 자연·생물 다양성 등 도시정책 전반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중서부의 내륙에 있는 투르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인구는 14만여 명인데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다.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역사문화 도시 중 하나이고, 2000년에는 유네스코가 문화·경관 부문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했다.

루아르강(Loire) 주변 르네상스 시대 고성(古城)과 공원이 많아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린다. 고성을 순례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레오나르도다빈치 칸벤션을 중심으로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관광사업, 친환경 교통정책 등 수원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와 투르시는 2019년 7월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후 꾸준히 교류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에 투르시 대표단이 방문했고, 수원시립미술관과 투르시 CCC OD(올리비에 드브레 현대미술 창작센터)는 지난 3월 화상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CCC OD의 소장 작품을 수원시립미술관에 전시하는 국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엠마누엘 드니 투르시장,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최재철 주프랑스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투르시는 전통과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라며 "수원시가 투르시와 자매도시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우정의 국가"라며 "투르시와 수원시가 프랑스와 한국의 형제적 우애를 잘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엠마누엘 드니 시장은 "수원시와 투르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라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의 정책은 투르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부터 우정을 쌓아온 우리의 친구, 수원시를 투르시 박람회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더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공통점이 많은 투르시와 수원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수원시와 투르시가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시작된 '투르시 박람회 2023'은 14일까지 투르시 전시회장(PARC EXPO TOURS)에서 열린다.

안성시, '대한민국 안전大 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안성시는 '대한민국 안전大 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맞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2일 안성시 롯데시네마 외 3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관내 노후건축물, 유원시설, 전통시장, 캔틸레버 구조물이 있는 교량 등 총 44개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안전大 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재해 예방활동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안성시의 5월 2일 점검에는 ▲부시장 ▲시민안전과 ▲시설물관리부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시현기자

임 부시장은 안전점검에 참가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등 격려를 하고 현장관계자의 현장설명을 들은 후에 건축 구조부 균열·누수 및 소방시설, 비상대피로의 설치·적정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함께 했다.

또한 안성시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긴급 안전조치를 내리는 등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주 부시장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제천시, 3년 만에 교류의 장 재개

고양특례시, 자매도시 제천시 공직자 교육 방문 및 격려

고양특례시가 자매결연도시 제천시 공직자 워크숍에 방문해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양 도시의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일 소도감 고양에서 열린 '제천시 공무원 소통과 화합의 직원 힐링교육(5.3~5.4)'에 참석하여 자매도시 제천시와 우호를 다졌다.

고양시는 2016년에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2018년~2019년에 걸쳐 제천시에 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시장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와 '2023 행주가(街) 예술이아(夜)' 등 고양시의 대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을 환영한 다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사업 ▲국제적 K-컬처 사업 등 고양특례시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교통·관광 등 각종 분야 현안 사항을 공유하며 양 도시의 지속적인 우호 증진 및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키운 다육화분 100개와 배다리 막걸리 증정식이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매도시 제천시의 공직자 여러분이 고양시에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와 '2023 행주가(街) 예술이아(夜)' 등 고양시의 대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높일 '재활활동가' 모집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에 관심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함께할 재활활동가를 양성한다.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원인은 질환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 80% 이상인데, 장애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에 따라 불편함이나 제한을 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의 장벽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민들이 재활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재활활동가 양성 교육은 주민주도사업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이해하고, 직접 장애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동아리를 구성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과 소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이 사회적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천시 쾌적한 출퇴근, 수소버스와 함께해요

이천시는 5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환경부·11개 지자체·SK하이닉스·운수사·현대자동차·SK E&S 등과 함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수소 고상버스가 출시되면서 통근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천시는 수소 고상버스 보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기업, 운수사)-관(환경부, 지자체)이 힘을 모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계획에 참여했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올해 8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수소버스의 구매 보조와 성능보증기간 확대 추진, 수소충

전 기반 확충과 기업, 운수사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지자체(이천시)는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집행, 수소충전 기반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현대자동차는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 생산·공급 △SK E&S는 수소통근버스의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버스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사와 협력하여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수소버스 기준 10~20분이면 충전 완료,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운행 가능)이 있어 충전불편 우려, 전기차 대비 낮은

인식 등 몇가지 진입장벽을 적극 극복을 통해 해소하면 충분히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소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은 그 소통 노력의 첫 결실이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으며, 연료전지에 깨끗한 산소 유입을 위한 3단계 필터가 설치되어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ESG 경영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기업의 통근버스 전환뿐 아니라 모빌리티 분야 수소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보타닉가든 예정지 여울공원 방문

정 시장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 화성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정명근 화성시장이 4일 '보타닉가든 화성' 예정지 중 한 곳인 여울공원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화성시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로 여울공원과 반석산, 자라뫼공원, 오산천, 우리꽃식물원 등 60만평에 공원·수변·산림을 활용한 테마정원, 온 가족 체험·교육장 등 시민이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사업이다.

'보타닉가든 화성' 예정지 중 한 곳인 여울공원권에는 전시온실과 그라운드센터, 국제작가정원 등이 조성된다.

전시온실은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전시와 사계절 관람이 가능한 전시온실로 연면적 8,000㎡이며, 올해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5년 말까지 1단계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라운드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공간과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카페테리아 등이 계획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전시온실과 그라운드센터 건립



현장 예정지 등을 둘러본 정 시장은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는 오는 5월 1일까지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 보타닉가든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시장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에

는 도심 속 공원이나 가든 등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다"며 "보타닉가든 조성으로 화성을 세계적인 명품도시이자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 시장은 오산동에 건립된 실내배드민턴장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실내배드민턴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면의 코트를 갖추고 있으며,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시민단체 등 합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 체결

최대호 시장 "지속가능한 청렴도시...지역사회 함께하는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안양시는 지난 3일 시청 강당에서 안양시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안양지역대표자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 합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문경식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정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안양지역대표자회의 대표,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청렴도시 안양'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노조 등이 함께 참

여해 의미를 더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우선 청렴 문화 정착 ▲부정청탁, 불합리한 관행, 갑질 행위 등 근절 ▲상호 존중 및 배려 문화 조성 ▲청렴문화 확산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시는 협약으로 공직사회 내·외부 청렴 네트워크 강화하는 한편, 부패·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안양 청렴학당, 청렴 다짐 릴레이 등 다양한 시책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가능한 청렴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활동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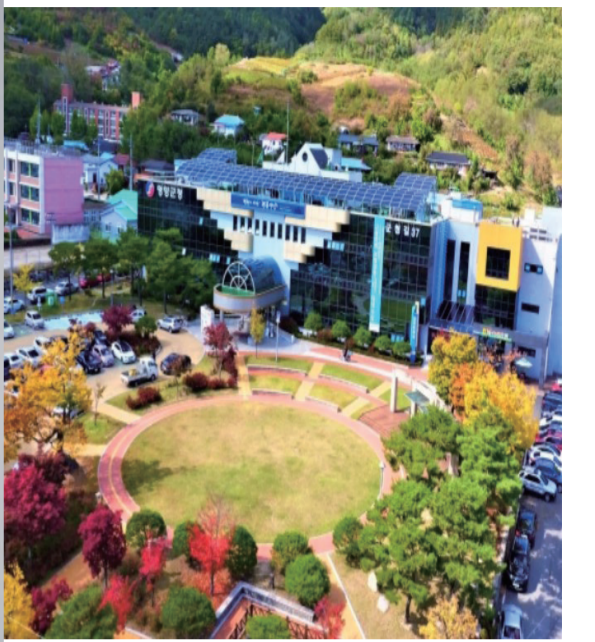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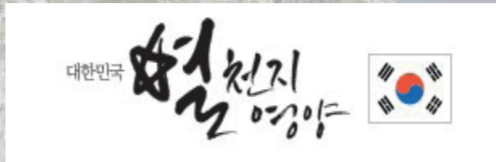
시흥시보건의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봉사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관심있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재활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분	일시	교육내용
1회	5. 15. (월) 14:00 - 16:00	주민주도사업 이론 및 사례
2회	5. 16. (화) 15:00 - 16:00	장애의 유형과 특성
3회	5. 22. (월) 15:00 - 16:0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이해와 신청 방법
4회	5. 23. (화) 15:00 - 16:00	활동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

◆ 교육 후 재발령동료 활동 (장애인 봉사활동, 인식개선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문의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031) 030-0728

이제 3일 후면, 이곳 자여이 살아 심시 청정의 고장이 영양에서 올 3월, 경북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양시가지와 일월산 일원에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청정의 고장인 영양에서 자란 산나물이다~」

이번 영양산나물축제는 예전과 달리 색다른 컨셉으로 산나물체험장을 확대 하고, 산나물 이색먹거리로 포장할 수 있는 산나물고르게, GREEN BAR 운영, 산나물모듬, 산나물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또한 지난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받은 고기굽터에 특별한 DJ부스를 별도 운영, 고기를 먹으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이나 자신의 사연을 알려주고 싶은 관광객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DJ부스를 운영, 옛 추억의 로망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미하는 등, 예전의 산나물 판매 중심에서 먹거리 중심으로 바꾼 컨셉으로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

이에, 취재진은 이런 산나물 먹거리를 위해 산나물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 지 이들 산나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으며, 어떻게 요리해 먹으면 좋을지 이해를 돕고자 산나물에 대한 이모저모 소개코너를 마련해 봤다.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청정 영양산나물! 산나물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이다.

특히 봄이 되면 이곳 영양군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 수질, 공기 속에서 자라나는 영양군 대표 먹거리다. 일월산(1,219m)과 맹동산(800m) 기슭에서 재배되는 어수리, 곰취, 산마늘, 참나물 등은 영양군의 깨끗한 봄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어 주며 특히 일월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맛과 향기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산나물에는 어수리, 곰취, 산마늘, 참나물, 두릅, 더덕, 취나물, 나물취, 금취, 고깔나물, 다래순, 고사리, 참취, 개미취, 가얏취, 수리취, 각시취, 머위, 오가피, 부지깽이, 곤드레 등이 산재해 있다.

▲이중 주요 산나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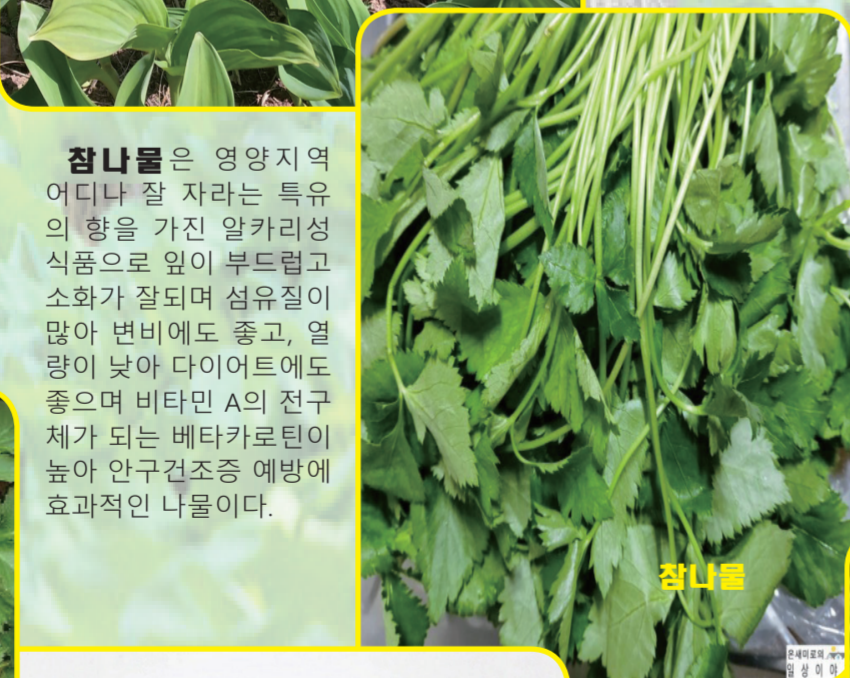
일월산 해발 8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라



곰취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영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산나물로서 어린 잎을 그대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해도 맛과 향이 뛰어난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A, C가 풍부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나물이다.



산마늘은 영양군 임가 대표 효자 산채로 특유의 향과 부드러움으로 인기가 많은 마늘 향이 나 '산마늘'로 불리며, 비타민 B1 활성화 및 항균작용,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감기 저항력과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육류와 함께 먹으면 향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참나물은 영양지역 어디나 잘 자라는 특유의 향을 가진 알칼리성 식품으로 잎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높아 안구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인 나물이다.



어수리는 독특한 향과 각종 무기질,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나물로서 3월 초~5월말 사이에 생산되며, 봄에 어린순을 식용하고, 한방에서는 어수리 뿌리를 만주독활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곰취는 맹동산 자락에서 자연상태 키운 식물로서 육류의 보쌈이나 김치로도 만들어 먹으면 특유의 향과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두릅은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찢어 먹으며 단백질이 많고 지방·당질·섬유질·인·칼슘·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 등이 들어 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주므로 당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다.



더덕은 산 속 깊이 자라는 식물로서 다른 지역 보다 씹쌀한 맛이 특징이다. 흰색 속살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하고 다량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침, 가래, 천식, 염증 등 기관지 질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취나물은 다년생식물로서 국화과에 속하는 나물로서, 곰취, 참취, 개미취, 가얏취, 수리취, 각시취 등 10여종이 있다.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 생채쌈, 생채무침, 건엽튀김, 생채 마요네즈무침, 묵나물 양념무침, 부침, 소금절임, 산채볶음 등으로 요리한다. 참취(나물취)는 향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맛이 좋아 생쌈으로도 먹으며 무침, 묵나물, 된장국 등으로도 많이 쓰인다. 한약명은 동풍채라고 하며 뿌리와 지상부 전초를 약재로 사용한다.



부지깽이는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

머위(머구, 머우)는 특유의 향과 쓴맛이 있어서 소화와 식욕 촉진에 좋으며 뿌리는 약재나 차로 사용하며 꽃은 튀김으로 익은 장아찌, 줄기는 나물 혹은 볶음으로 먹을 수 있다.



오가피는 새순을 무쳐 먹으면 씹산마늘, 두릅등이 있다. '생철이(겉싸를한 맛과 상큼한 맛이 특징이고절이)'는 산나물 중에 연하고 부드러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간의 해독러운 나물을 깨끗이 손질한 다음 능력을 높여준다. 이와같이 영양산나물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은 물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로서고, 고춧가루, 식초, 깨소금, 설탕, 상큼한 봄맛과 풍부한 영양을 한꺼번에 소스로 만들어 번에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이 산나물산나물이 명들지 않도록 살살 버이 바로 건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무려서 바로 먹으면 된다.



두릅, 당귀, 산마늘 등이다. '데쳐서 무치기'는 그냥 먹기엔 좀 거칠거나 쓴맛이 나는 경우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들기름을 살짝 넣어 나물을 무쳐 먹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산나물은 마늘이나 참기름을 쓰지 않아야 산나물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데쳐서 무치기하는 산나물 요리는 산나물 거의 모든 종류에서 적용되는 요리법이다. '부침(부침개)'은 생으로 먹기 힘들고 데치면 향이 많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나물은 기름에 지져서 먹음으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물은 참나물, 취나물, 참두릅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산나물 종류와 산나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산나물 요리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다음인 이곳 청정의 고장이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사포닌 성분으로 면역력을 길러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고. ▶산성화 되어가는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며 ▶농약이 없거나 공해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자란 청정식품이다. ▶이런 전국의 수많은 산나물중 「최고의 으뜸산나물은 바로 일월산(1219m),맹동산(800m) 등에서 자란 영양산나물」이다. 영양 산나물은 ▶청정자연에서 채취되어 타지역 산나물보다 월등하게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능 활성화로 신진대사 촉진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발암성 물질, 콜레스테롤 억제에 대장암,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공급으로 영양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체에 매우 유익한 영양소를 듬뿍 안고 있는 산나물을 맛있게 먹는 요리는 무엇일까? 산나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나물에 묻은 흙이나 오물 등은 흐르는 물에 씻고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은 데친 후 살짝 우려내거나, 소금물에 절인 후 요리를 하면 된다. 이 산나물 요리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식, 쌈먹기, 데치기'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물에 깨끗하게 씻기만 하고, 쌈장과 고추장 등을 함께 싸먹거나 데쳐서 찢어 먹으면 된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은 곰취, 어수리, 참나물, 당귀, 두릅, 당귀, 산마늘 등이다. '데쳐서 무치기'는 그냥 먹기엔 좀 거칠거나 쓴맛이 나는 경우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들기름을 살짝 넣어 나물을 무쳐 먹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산나물은 마늘이나 참기름을 쓰지 않아야 산나물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데쳐서 무치기하는 산나물 요리는 산나물 거의 모든 종류에서 적용되는 요리법이다. '부침(부침개)'은 생으로 먹기 힘들고 데치면 향이 많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나물은 기름에 지져서 먹음으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물은 참나물, 취나물, 참두릅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산나물 종류와 산나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산나물 요리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다음인 이곳 청정의 고장이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사포닌 성분으로 면역력을 길러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고. ▶산성화 되어가는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며 ▶농약이 없거나 공해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자란 청정식품이다. ▶이런 전국의 수많은 산나물중 「최고의 으뜸산나물은 바로 일월산(1219m),맹동산(800m) 등에서 자란 영양산나물」이다. 영양 산나물은 ▶청정자연에서 채취되어 타지역 산나물보다 월등하게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능 활성화로 신진대사 촉진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발암성 물질, 콜레스테롤 억제에 대장암,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공급으로 영양 불균형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담놀이터'로 변신한 도담소에서 어린이들과 특별한 하루

- 경기도, 어린이날 앞두고 4일 도담소에서 부모·어린이 초청행사

- 김동연 지사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제일 큰 수혜자들이 어린이들이 되도록 할 것"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4일 도담소에서 어린이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김지사는 부모들의 양육 고충을 듣고 "손에 잡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도담소를 놀이터로 꾸며 경기도 인구수별 위험지역 중 한 곳인 여주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취약지역 근로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단의 직장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2곳의 어린이와 부모 60여명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부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초대했던 손님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손님들이라며 "오늘은 도담 놀이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편하게 경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저출생 문제, 아기 키우기 어려운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출생



대책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작지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사 되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와 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그 약속의 제일 큰 수혜자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도담소 잔디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풍선 놀이를 하고 열풍에 무당벌레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는 페이스페인팅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초청행사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즐기고', '부모님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들이 도담소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니 운동회를 열

고, 경기도 특화 보육 프로그램인 영유아 체험형(AR) 인성 버스과 인공 지능 로봇 알파미니를 선보였다.

어린이들은 증강현실 콘텐츠와 터치스크린 놀이교구가 탑재된 버스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알파미니가 불러주는 동요를 들었다. 또 지역 대학교 2곳의 보육동아리 2개 팀이 참여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을 제공하고 인형극 공연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26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며, 영유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외국인 자녀 대상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 등으로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인성을 위해 아이사랑놀이터, 영유아 인성 체험실 '늘품숲', 영유아 체험형(AR) 버스, 놀이지도사 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대규모 공사장 인근 소상공인 업소 활성화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 "골목상권 살아야 지역경제 순환" 상생 노력 당부



광명시가 관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지역주민 이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6일 관내 19개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간담회에 이은 후속 간담회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순환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아 사각지대 구축구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역민 이주로 인한 매

출감소로 힘들어하는 대형 공사장 인근 식당 등 업소를 위해 공사현장에 내부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도록 요청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건설현장 현장대리인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사와 관련한 소비가 관내 건설장비, 건설자재, 전문건설업체, 소상공인 등을 통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관내 소비실적을 확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시공사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용민기자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천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23년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높이는 수업 ▲Kids Reading (A), Kids Reading (B), 학년별 책 읽기 및 필사를 통해 독서력을 높이고 깊이 다룬 다양한 시선으로 글, 그림을 바라보는 독서능력을 높이는 수업 ▲완독클럽 (A), 완독클럽 (B),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과학놀이 체험으로 과학원리 이해하는 수업 ▲나는야 실험왕 등을 운영한다.

필사, 함께 책 읽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2023년 5월 11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천시장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독서경험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오산시, 미래 도시 디지털 인재 양성 본격화

오산시·한신대학교·한컴아카데미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산시와 한신대학교, 한컴아카데미가 함께 지난 4일 시청 상층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도시를 향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들어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와 디지털 전문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그리고 한컴그룹 계열의 ICT 융합 전문 교육 기관인 한컴아카데미가 고급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미래 도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 협력 ▲한신대 한컴아카데미 분원 설치 및 운영 협력 ▲오산시 학생 및 시민 대상 AI·코딩 인식 제고 및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은 "한신대학교는 2023년 AI-SW 계열 전공을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선도 대학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ICT 기



업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미래 도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중현 한컴아카데미 대표이사는 "오산시 및 한신대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CT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8기 오산

시는 코딩·AI센터 구축을 필두로, 초·중·고 코딩 교육 지원, 오산형 AI 교육 추진 등 한발 빠른 코딩·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산시 학생 및 시민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후보지 내 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 잘 세워달라"



"용인 이동·남사읍 215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텐데,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문제다. 해당 주민과 기업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지 범정부 추진 지원단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산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11개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자, LH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산단 개발 방향, 범정부 추진지원단 운영체제, 산단조성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용인특례시도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150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데 상주 근로자만 4만 명이 넘고, 인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SK하이닉스와 50개 소부장기업이 입주하는데 이곳도 상주 근로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후도시와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을 성공시키려면 교통망도 동시에 확충돼야 한다"며 "경강선을 경기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도로를 지나게 될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가 LH로 정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조만간 LH 등과 협약을 맺고 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양지면, 제 51회 어버이날 행사 나눔 실시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6일 7일 양지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정구자)는 부녀회원과 양이들간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 준비한 부식을 43개 마을별로 떡 1말, 음료 2박스, 바나나 1박스, 과자 2박스, 참외1박스, 소주1박스를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내 독거노인등가정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번행사는 양지면 노인회, 면정자문위원회, 발전협의회,체육회,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지도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청소년지도위원회등 후원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양지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무료급식,현웃수거,환경정화 캠페인등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한편 정구자회장은 이번 사랑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일일이 방문하여 안부를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서 어르신들이 반겨주시며 기뻐하시는 걸 볼 때 행복을 느꼈다.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과 함께 현웃등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돕기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손성철면장은 매년 이루어지는 어버이날 행사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시는 회장님과 각 이장님 그리고 부녀회원님께 감사드리고 경로



일시: 2023. 5. 6(토)~7(일) 장소: 각 경로당 주관: 양지면 새마을부녀회 후원: 노인회,민정자문위원회,발전협의회,체육회,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지도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청소년지도위원회

문경시, 2023년 春夏秋冬[춘하추동] 꿈꾸는 테마 기행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봄-소-풍(소중한 직업 풍경 속으로)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5월 2일부터 5월 12일 까지 총 4회기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春夏秋冬[춘하추동] 꿈꾸는 테마 기행. 봄(春)-소-풍"이라는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으로는 라탄공예(단스탠드), 쌀 베이킹(카네이션앙금쿠키), 베이킹(미니시오빵), 목공예(나무컵받침) 제작으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4월 검정고시 시험을 끝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직업의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하며, 체험은 직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 내 공방을 활용한 체험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배우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성취감 및 잠재적 능력 개발의 시간을 가진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春夏秋冬[춘하추동] 꿈꾸는 테마 기행"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3년도 봄-소-풍(소중한 직업 풍경 속으로), 여름-힐링테라피, 가을-아웃리치 및 문화 체험, 겨울-

졸업여행이라는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대면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래와 어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고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다양한 지원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근수/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가락국시조대왕 송선전 춘향대제 봉행

4일 김해 수로왕릉 내 송선전, 송안전에서 종친회 등 500여 명 참석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김해 수로왕릉 내 송선전과 송안전에서 열린 춘향대제 봉행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초헌관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아헌관에는 김성우 가락경남종친회장, 중헌관에는 강상구 김해향교 유림, 대축과 집례는 김홍철 백련암종회 고문, 김성영 집례 전승교육사가 각각 맡았으며, 전국 종친회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선전은 수로왕과 왕후 허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향화를 받드는 전각으로 우리나라 8전(八殿) 중의 하나

이며, 송안전은 2대부터 9대까지 8왕조의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특히 송선전 제례는 시조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후대의 번영을 기원하며 1,800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제례로, 조선시대에는 예조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 경상도 관찰사가 행하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다. 1990년 12월 경남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이후 매년 음력 3월, 9월 15일에 춘추향대제를 봉행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송선전 제례를 포함한 무형문화재는 우리 국민들이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유산"이라며 "가락국의 역사와 문화가 남아있는 유서깊은 곳인 김해의 가야고분군이 오는 9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부산시, 「2023년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부산시민 68.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잘하고 있다" 밝혀 ※ 지난 4.14 ~ 4.17일, 시민 1,000명을 대상 전화조사 실시

부산시가 시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견을 듣는 '2023년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주요 정책이슈 ▲부산시정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야에서는 응답자 68.3%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대응을 비롯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에 불과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부산시민과 국민의 유치 열기 북돋움(28.1%) ▲중앙정부의 유치외교 활동(26.2%) ▲부산시의 국가별 유치외교활동(24.9%) ▲대기업의 협력을 통한 유치활동(10.1%) ▲유명연예인 등 케이(K)컬처를 활용한 홍보활동(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돕는다고 75.9%가 응답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기대되는 점으로 ▲각종 기업시설(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29.9%) ▲50만 개 일자리 창출(25.1%) ▲24시간 편리한 공항이용(20.9%)

▲지역균형 발전(10.6%)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제고(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이슈 분야에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 시민안전보험 등 1분기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이용) 정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았으나, 응답자의 75% 이상이 도움(이용)이 된다고 답해 꾸준한 정책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정 만족도 분야에서는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시정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력 정도, 앞으로 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지난해 4분기(63.8%) 대비 4.4%가 증가한 68.2%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부산시의 현재 시정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62.7%) 대비 2%가 증가한 64.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산시가 현재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4분기(71.5%) 대비 0.4%p 소폭 떨어진 71.1%였다.

특히 생활 여건의 전반적인 만족



도 시정정책 추진 만족도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45.9%) ▲청년일자리 확충(23.3%) ▲출산·양육지원강화(13.3%)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11.8%) ▲주거환경개선(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반적인 시정 만족도의 상승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 추진한 범국가적 엑스포 유치 열기 조성에 시민들과 우리시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부산시를 믿어주시는 만

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정책홍보에도 적극 나서 부산시의 좋은 정책들을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시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송중진/기자

영덕군, 민원실 새 단장하며 '국민행복민원' 눈앞

수유실·민원상담실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돋보여

영덕군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국민행복민원실'의 기준에 맞춰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오는 8일부터 손님맞이에 나선다.

영덕군은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군청 1층에 있던 종합민원처리과를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가운데 쾌적한 공간에서 지저귀를 바꿔주거나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설치했으며, 담당 공무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청사 이용을 위해 서류 작성대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를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

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처와 3면으로 된 민원안내판을 설치해 처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민원일에 익숙지 않은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군은 이번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기관인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편안한 민원실은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며, "군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수성구, 도·농 상생발전 위한 자매결연 체결

경북 의성군은 대구 수성구와 4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농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 회장, 김중호 재대구의회성우회장 등 양 지자체의 대표단 및 간부 공무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협약은 양 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친선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매단체임을 공동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지역 문화·관광·스포츠·청년·교육 등 각 분야 교류 △농·축산분야 협력 및 지원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도·농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성군과 수성구는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증진과 더불어 주민교류 활성화와 농특산물 구매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성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동반 성장과 도농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자원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간

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 후 수성구 대표단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조문국사적지 등을 견학한 후 대구로 돌아갔다.

한편 의성군은 2010년 서울시 노원구를 시작으로 국내 타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으며, 지난 3월 전남 함평군에 이어 대구시 수성구와는 일곱 번째 자매 도시가 됐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과수화상병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화상병 미발생 목표로 대응 역량강화 훈련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4일, 경북도 및 시군 과수화상병 담당자 30명이 모인 가운데 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모의상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화상병 담당자들은 시군별 화상병 발생 대응 요령 및 운영 체계를 공유했다.



현장실습을 통해 병 발생 신고부터 시료채취, 이동통제선 설치, 수령 측정 등 실제 공적방제에서 실시하는 절차를 미리 실습함으로써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은 2021년 6월 안동, 영주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12농가 7.13ha

를 매몰했다.

지난해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약제 살포와 협조로 현재까지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상병 미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표준운영절차(SOP)를 일제 정비하도록 했으며, 또 도-시군 합동 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모의상황훈련을 통해 시군센터 담당자들의 현장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상병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비로 개막행사 6일로 연기

- '5일 호우 예보' 시민·관광객 안전 위해 야간 개막행사 연기 결정
- 선비축제 체험·전시·공연행사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대로 개최

오는 5일 저녁 7시 서천 둔치 특설 무대에서 개최 예정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식이 비 예보로 6일 저녁 6시로 연기됐다.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3일 긴급회의를 갖고 기상악화(우천, 강풍)가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비문화축제는 예정대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고 야간 개막행사는 하루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축제 첫날인 5일 예정된 고유제(서천둔치)와 소수서원·선비촌·선비세상에서 진행되는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우천으로 연기된 개막행사는 6일(토) 저녁 6시부터 서천둔치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주제공연,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개막축하 공연은 트롯가수 나태주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과거 젊은 선비의 모습을 5장에 걸쳐 담은 '신바람난 젊은 선비의 하루' 주제공연, 미스트롯 설하윤과 MZ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팀 HOOK의 공연이 마련되며 축제장을 찾는 나들이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시 공연은 선비세상과 신바람 야외놀이터, 어린이 자연 놀이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축제 첫날 기상악화가 예상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막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선비문화축제는 10년 만에 진행되는 퍼레이드 행사와 축제 장소의 이월화, 야시장 운영 등 많은 것이 새롭게 시도되는 만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오는 5월 5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7일까지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 서천둔치 등에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선비정신과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주,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화려한 점등식으로 막 올려

- 5.3. 금장대 맞은편 둔치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가져, 29일까지 곳곳에서 불거리 제공
-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은 불빛으로 경주 밤하늘 가득 채워

지난 3일, 신라 연등회 맥을 이은 경주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3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주낙영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장대 맞은편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경북도 국악예술단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점등 퍼포먼스, 제등행렬, 회향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등이 점등되는 순간 형산강 연등축이 금장대 불빛과 함께 형산강에도 그대로 비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고, 불꽃쇼는 경주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특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은 개막식 무대에서 영마를 삼거리를 거쳐 신한은행 사거리 지나 봉황대로 이어지는 3.1km 구간으로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국사 신도, 경주불교사암연합회, 경주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타대를 앞세워 연등을 손에 들고 불빛으로 경주 일원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연등문화축제 첫날 현장에는 사진작가들도 찾아 강변에서 금장대 일대를 밝히는 형산강 연등쇼



과 수상등을 향해 연신 서터를 터뜨렸다.

"마음의 평화, 지혜의 등불"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5일까지는 고수부지 20점 장엄등 전시, 연등 페스타, 연등 플로깅,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단 우천시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된다.

또 29일까지는 금장교에서 장군교 일대를 축제의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거리연등은 물론 금장대를 중심으로 동국대와 병원 등을 배경으로 형산강 '연등 숲'도 전시해 역대급 야경을 선보인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연등문화축제는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



는 만큼 예전의 명성과 위엄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행사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희망의 연등 불빛으로 수놓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셔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 | | | |
|--|---|---|
| <p>결혼·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 <p>임신·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례 취득세 면제 | <p>돌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



예천군, 제18회 예천전국한시백일장 개최

- 평소 뛰어난 기량 마음껏 펼쳐
- 전국에서 한시 동호인 300여명 모여 수준 높은 작품 출품



예천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예천진호국제양극장 내 문화체육센터에서 제18회 예천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했다. 예천전국한시백일장은 사라져가는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한시가 가진 풍류의 멋과 선비정신을 알리기 위해 전국 규모 대회로 개최하고 있으며 유교문화의 계승과 한시문화 부흥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대 경북도의회 의원이자 병산서원·도산서원·소수서원 원장을 거치며 600편이 넘는 한시를 남긴 일당 박윤하 선생을 기리기 위

해 열렸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하는 등 한시 동호인들이 많은 관심 속에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돼 한시백일장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전국한시백일장은 한시의 전통을 잇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백일장"이라며 "전국에서 모인 한시 동호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2023 예천활축제가 펼쳐지는 예천에서 좋은 추억 쌓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GS에너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 MOU 체결

GS에너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NuScale SMR 도입 타당성 검토



울진군은 지난 4일, GS에너지 본사에서 GS에너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단지' 육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단지 인프라 구축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NuScale SMR 도입 타당성 검토,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전기/열 공급, ▲협력기업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참여 등이며, 울진 국가산단 내 미국 NuScale사의 SMR을 건설해 전력

과 열을 생산해 국가산단 내 공급한다. GS에너지는 국내 1위 민간 발전사업자로서 미국 뉴스케일파워 SMR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SMR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고온 스팀을 활용한 수소생산 등 무탄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MOU로 울진군에서 추진 중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군은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천시 홍보전산실, 함께하는 농촌 일손 품앗이

홍보전산실 직원, 마늘종 제거작업으로 농촌사랑 실천

영천시 홍보전산실은 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통면 계포리 마늘재 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자, 홍보전산실 직원들이 참여해 계포리 마늘밭(5,280㎡)에서 마늘종 제거 작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

농가주는 "일손 부족으로 고민이 깊었는데, 바쁜 업무 와중에도 내일쳐줘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청옥구 홍보전산실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보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풍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서가 함께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천마총 발굴 50년! 문화유산 100년 비전 밝혀...

- 경주 대릉원,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비전 선포식 개최
- 천마도 특별전시,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쇼, 다채로운 기념행사 열려



천마총 발굴 50년 비전선포식 1973, 천마를 깨우다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가 4일부터 시작된다. "대릉원 녹턴-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를 주제로 신라고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가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경주시는 대릉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해 무료 개방하며, 천마총 고분 내부는 미디어아트 행사기간(5.4~6.4) 동안 무료로 운영하며,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을 개최해 2014년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전시된다. 자작나무 겹집 위에 그려진 '천마도'(天馬圖)*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상설전시에서 만날 수 없었으나,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통해 총 2회('하':5.4~6.11 / '상':6.12~7.16) 공

개하며 이번이 신라 회화 걸작 '천마도'를 실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천마총은 우리 힘으로 신라고분을 발굴한 첫 사례로 한국 고고학의 변혁과 성장을 이끌었다"며 "앞으로 미래 100년을 넘어 1000년의 시간을 이끌어갈 소중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경북의 미래 비전과 함께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안동 차전놀이, 늦다리밟기 공연 개최 '전 세계 유일 민속 콘텐츠'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대표하는 민속 콘텐츠인 차전놀이와 늦다리밟기 정기공연이 오는 6일과 7일 모디684 앞 대로에서 문화재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 차전놀이보존회와 안동늦다리밟기보존회가 주관한다. 펼쳐진다. 먼저, 5월 6일(토) 오후 3시에 안동 차전놀이가, 이튿날인 7일(일) 오후 3시에는 안동늦다리밟기 정기발표 공연이 개최된다. 안동차전놀이는 1,0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후삼국시대(930년)에 고을의 삼대왕(김신평, 권행, 장갈)가 고창(안동의 옛지명)의 병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고려의 왕건을 도와 후백제의 견훤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고려가 후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승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동놀이로 대단위 인원이 집단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 단결과 협동성, 일사분란한 행동 통일을 이취 웅장함과 역동성을 자아낸다.

안동늦다리밟기는 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으로 안동으로 피난하여 송야전에 이르렀을 때 노국공주가 건너자들의 등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전승됐다.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공민왕이 포로가 되었다 풀려나는 것을 형상화한 ▲실감기 ▲실풍기를 시작된

다. 동부와 서부로 편을 갈라 춤을 추며 흥을 돋우는 ▲대문놀이 ▲원무놀이, 시연자들이 등을 굽히고 강을 건너는 공주를 표현한 ▲웅굴늦다리 ▲줄늦다리, 자기편 공주의 다리를 놓으려고 동부와 서부가 서로 밀치며 싸우는 ▲고개싸움 후 ▲한 줄 늦다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권석환 회장은 "차전놀이와 늦다리밟기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고 후대에 오롯이 전승·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민속 콘텐츠 차전놀이와 늦다리밟기 공연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연으로 축제의 신명과 흥이 온 도심을 들쭉날쭉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발표공연 이외에도 차전놀이와 늦다리밟기는 축제 기간 콘셉트를 달리하여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미래세대 청정에너지 공모전' 시행

- 울진군 초·중·고생 대상 그림·표어 공모 받는다
- 박범수 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청정에너지 관심도를 높여겠다"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미래세대 청정에너지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초·중·고생 대상 그림공모전은 '청정에너지로 행복해지는 세상', ▲중·고생 대상 표어공모전은 '청정에너지의 소중함'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한울본부는 울진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맘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청정에너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번에 펼쳐지는 공모전은 울진군 소재 초·중·고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위해서는 URL(https://linktr.ee/hanul_contest) 또는 포스터 상의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그림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표어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에 표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제출된 그림과 표어를 철저하게 심사

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인원은 초·중·고등부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림 공모전 참가자 전원에게 1만 원 상당의 간단한 미술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표어 공모전 참가자 2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울본부 홈페이지(hanul.khnp.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사무국(☎054-858-2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2023년 한울원자력본부 미래세대 청정에너지 그림·표어 공모전

공모기간: 2023년 5월 8일(월)~5월 26일(금)
 공모대상: 온라인 풀 접수(우측 하단 QR코드로 접속)
 공모분야: 그림(초·중·고생) / 표어(중·고생생)
 수상자 발표: 2023년 6월 1일(목)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초·중·고등부	1명	3명	5명
부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장, 기념품, 그리고 후원금도 지급됩니다.

문의: 한울본부 기획관리팀 | 한울본부 기획부 | ☎054-858-2080 (내선2번 119번)

전북도, 대일(對日) 수출 확대 등 위해 기업목소리 경청

김관영 도지사, 일본계 외투기업·대일(對日) 수출기업과 간담회

전북도가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비롯해 산업·통상관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소재 일본계 외투기업, 수출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다지기로 했다.

전북도는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일본계 외투기업과 대일(對日) 수출기업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소재 대일(對日) 수출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로얄케인,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시즈오카한성, 아데카코리아, 아이세로미림, 안마농기코리아, 트라이스톤코리아, 한국구보이다.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지난 2017~18년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어려움, 업계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및 일본과의 소부장 규제 분쟁·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 통상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은 "작년 약 1천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고 이 자리를 빌어 행정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인력부족의 잦은 이직률과 우수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 제조 업체인 안마농기코리아의 와타나베 타케시 대표는 인재채용의 문제와 일본제품의 판매활동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농기계 관련 인력채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채용 박람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밖에 참여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기업영위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외투기업 전용 인력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의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약속했다.



전북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은 "판로 마케팅이 영세기업에 우선시 되는 지원정책의 형편상 그간 체감하지 못하셨을 것 같다"며, "외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전북지원단 김하영 부단장은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 관계자는 "기업별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 및 시군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도 권 유출을 막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해 임기 초기부터 교육 전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에 투자할 기업이 전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역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지급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박서인 선수



(재)춘향장학재단은 지난 5월 4일에 15세이하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박서인 선수에게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400만원)을 지급했다.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은 남원의 명성을 떨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우수한 예·체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특기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남원을 대표하는 예·체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최경식 이사장은 "박서인 선수가 앞으로 우리 남원의 명예를 드높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하고, 앞으로 남원 학생들이 예·체능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교동에서 태어난 박서인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며 수상한 우수 특기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남원을 대표하는 예·체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최경식 이사장은 "박서인 선수가 앞으로 우리 남원의 명예를 드높일

이남출기자

진도군,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개최

5월 5일부터 이틀간...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

진도군이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은 5월 3일 진도개의 날을 맞아 진도읍 동외리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반려견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되는 행사인만큼 진도개와 반려견이 함께 즐기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5일 개막 행사로는 사칙연산과 프

리스트알 등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반려견 행사는 ▲여질리티와 달리기 등 진도개 독(dog) 스포츠 ▲인명구조, 프리스타일, 프리스비, 사칙연산 등 반려견 시범행사 ▲점핑릴레이, 파워디스크 등 독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총 27가지의 참여·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축제를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 ▲짚라인 등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운영 ▲어린이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낚시·비눗방울 체험 ▲어린이 패들보트·탐승형 로봇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반려감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려견과의 교감·교육체험과 반려견의 기본 관리법을 알려주는 미용 체험, 반려견 수영장 교육, 진도개와 반려견 OX퀴즈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10m 달리기 ▲진도개 가방·공예품 만들기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반려견 미용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진도개가 뛰노는 진돌이 놀이터와 토끼, 미어캣, 공작새 등이 있는 미니동물농장, 야생화와 다육식물 등이 전시된 아리랑식물원 관람과 행사장 곳곳에 휴게공간도 마련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진도개 페스티벌에는 전국 7개 대학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의 참

여로 행사를 진행,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4년만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장을 찾는 반려동물과 관광객 모두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개 페스티벌이 반려동물 문화의 메카와 반려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2023. 5. 5.(금)~6.(토)

장소: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진도군

+ 반려견 시범 및 대회

- Dog스포츠 시범 및 대회
- 반려견 10m달리기 대회 등

+ 관광객 참여·체험 행사

- 어린이 탐승형 로봇체험
- 어린이 패들보트 체험
- 어린이 퍼즐 맞추기 체험
- 어린이 낚시체험
- 어린이 비눗방울 체험
- 애견 미용 체험
- 애견 수영장 체험
- 부모와 함께하는 애견 산책
- 반려동물 교감·교육 체험
-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체험
- 진도개 공예품 체험 등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

전라남도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로 자리 매김을 위한 신호탄

장흥 생물의약산업 통합 협의회 워크숍 개최



장흥군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장흥 생물의약산업 통합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라남도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진흥원 ▲전원자연연구소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생물산업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기관별 비전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및 장흥군이 중요 목표로 선정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생물산업 전문성 향상 및 역

량 강화를 위해 천연물산업 발전 전략, 전라남도 국가연구 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특별 강의와 바이오 분야 민간기업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다.

생물 산업과 웰니스 관광 연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 주재 '장흥 생물의약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착수를 위한 연구기관 의견 수렴 및 토론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워크숍이 행정과 연구기관 간 협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물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사업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100년의 역사 순천 웃장, 문체부 'K-관광 마켓 10선'에 선정

문체부, 'K-관광 마켓'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K-관광 마켓(전통시장) 10선'으로 순천웃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K-관광 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국내외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고유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견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순천웃장은 매년 열리는 국밥축제(9월 8일), 남도 음식거리 축제 등 먹거리·볼거리가 풍성하며, 인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문체부는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

리를 발굴하고, 연계 관광지와 결합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K-관광 마켓'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TV, 지역 명사(홍보대사),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 등을 활용해 K-관광마켓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시장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한 달여 만에 270만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고 있다"며 "100년의 역사를 지닌 순천웃장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전남도 김영록 지사, 독일 린데사와 8억 달러 투자협약

(주)한양 등과 함께 여수 묘도에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외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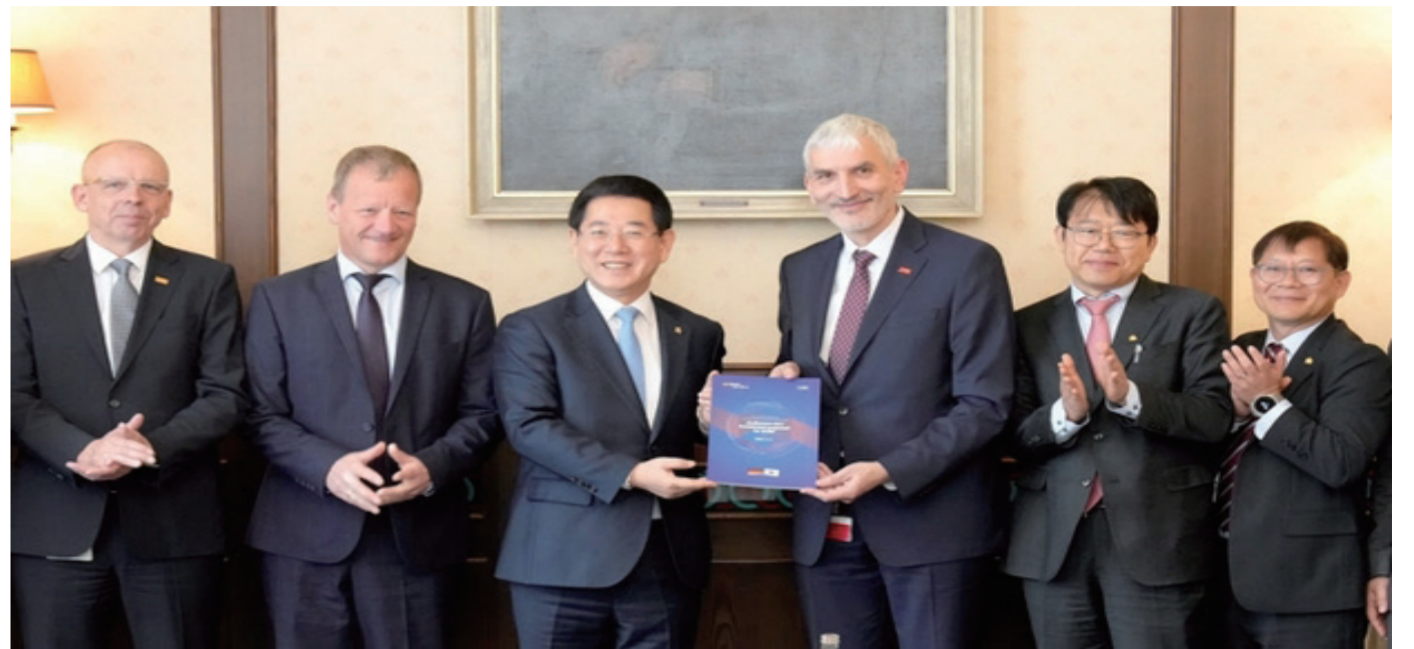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린데, (주)한양 등과 함께 8억 달러(한화 1조 원)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

린데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회사로, 수소 밸류체인 각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생산, 프로세스, 사용 등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양은 건설-플랜트 사업을 넘어 LNG 터미널 사업, 재생에너지 생산, 청정 수소발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손 더빈 린데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총괄대표, 김형일 (주)한양 대표, 성백석 린데코리아(주) 대표, 문병철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양은 묘도에 LNG터미널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린데와 한양은 이곳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청정 수소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8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43만 톤 포집해 30년간 1천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외 저장소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수소에너지는 탈탄소 경제로의 국면 전환 요소로 발전(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된다.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린데, (주)한양과 8억 달러 규모의 '묘도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줄여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그린수소 에너지 연구개발·실증·생산단지 등을 구축, 전주기 핵심 기반을 확보해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양만권의 여수광양항을 수소물류 중심지로 육성해 수소산업으로 거점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변전소 신설을 한전과 협의해 전력계통을 적기 연결하고,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필수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를 8.2GW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해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투자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손 더빈 총괄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도, 여수시, 한양, 린데가 적극 협력해 전남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청정수소발전을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협약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의 바스프 본사를 방문, 전남과의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한 후 정밀화학, 반도체-배터리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라이너 게이어 수석 부사장은 "바스프는 미래성장산업으로 해상풍력발전, 이차전지 배터리 등 사업 다각화를 고려 중이며, 전략적 사

업파트너인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투자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는 독일 카를벤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 바이오가스 시설과 운영 방식,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은 단순히 가스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 또 발전 폐열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가능하다.

김영록 지사는 "바이오가스 시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시설"이라며 "퇴액비 자원화 위주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 시설로 전환해 탄소중립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화순군, '제11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해 새롭게 구성

화순군은 다음 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지역의 주요 보육 정책을 결정할 '제11대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총 12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 대표 및 보육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공익대표자 8명 ▲보육전문가 2명, ▲관내 어린이집위원장 대표 1명 ▲관내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1명이다.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의

망자는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화순군 가정활력도 보육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그 밖의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가정활력도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목포시, 2023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가 2023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관광기본권보장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상품을 공모하고 선정된 상품을 관광취약계층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여행 상품은 총 4개(신안, 나주영암, 순천·보성, 순천)이며 오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4월 26기준 목포시 거주 만 6세 이상의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모집인원은 총 1,370명(저소득층 1200명, 장애인 170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도 추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현재 시에서는 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위해 23개동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지역 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해명/기자

함평군, 자매결연 자치단체 함평나비대축제 방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7개 지자체에서 4일 전남 함평군을 찾았다.

군에 따르면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7개 지자체 방문단이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경남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경남 남해군, 경기 안양시, 인천 부평구, 경북 의성군이다.

이날 방문단은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후 함평엑스포공원을 방

문해 나비대축제도 관람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먼 곳까지 흔쾌히 방문해준 자매도시 방문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지자체 간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보고회

부시장 주재 시설물 87곳 안전점검, 6월 16일까지 완료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강영구 부시장 주재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행 점검을 목표로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로·교량, 관광·숙박 시설, 건설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의료기관 등 총 87곳 시설물이다.

시는 고층건축물과 같은 인력·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경우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에 따른 경미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하는 한편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주기적인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

된 보고회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를 비롯한 14개 부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안전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대상 건축물 및 주변 위험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단독면담 강원특별법 정부 협의 막판 총력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폭 최대한 넓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원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 지방 안전점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강릉 산불 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후, 한덕수 총리와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단독면담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들에게 '강원도에 한시적 자유(권한이양)를 줄

수 없는가', '기술발전으로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므로 규제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법의 정부 부처협의를 막바지에 접어들음에 따라 국무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태 지사는 "그간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처협의를 진척이 있었던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한 달 남았다. 행정부를 설득하는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양양군, '나는 양양의 서핑강사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 실시

양양군이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는 양양의 서핑강사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을 운영한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은 양양군의 서핑 관광객 증가에 따라, 양양 서핑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서핑강사에 대한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서핑고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능력 있는 서핑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양군서핑협회에서 주관하며, ISA(올림픽 산하 위원회 서핑협회) 자격증을 갖춘 강사가 오는 5월 8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양양 해양종합레포츠센터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차수당 교육은 주 5일 30시간으로, ▲서프레스큐 인명구조 교육 ▲서핑강사 소양 교육 ▲랜더서핑 서핑 교육 ▲서핑심판 교육 등 서핑강사 인증 취득을 위한 알찬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을 7차까지 운영하여 118명이 서핑강사 인증을 받았고, 올해에는 10차까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양양서핑협회에서 발급하는 '서핑 강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서핑 강사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강사 성함 및 소속 서핑샵 상호명이 양양군 서핑협회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추후 양양군에서 열릴 서핑 대회 등에서 우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차수별 교육인원은 최대 20명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핑강사인증 교육을 진행한다"며, "능력 있는 서핑강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양양군이 명실상부 서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양군내 서핑샵은 84개소로, 서핑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만식기자

자전거투어로 강릉의 아름다운 핵심 명소 감상하세요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1,000명 모집

강릉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2023 희망 강릉 자전거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자전거 투어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이 동해안의 아름다운 핵심 명소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비경쟁 투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주문전에서 옥계까지 이어진 동해안 자전거길 50km 코스와 대관령 옛길 힐클라임 18km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주행 중 각 코스별로 지정된 인증

지점에서 배부된 번호표와 함께 사진을 찍어 행사 홈페이지에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완주자 모두에게 완주메달 및 완주기념품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5일부터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1,000명을 모집하며, 인증에 필요한 번호표 등 지급품 일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완주기념품과 별개로 선착순 접수자 300명에게는 투어패스 상품권을 제공하며,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에게는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해안 자전거길의 매력을 알리고, 강릉산불피해 지역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Y/A 양양군서핑협회

'나는 양양의 서핑강사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

양양군서핑협회는 체계적인 서핑강사 인성교육으로 우수강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교육대상
1차	2023년 5월 8일(토) 14:00~18:00
2차	2023년 5월 15일(토) 14:00~18:00
3차	2023년 5월 22일(토) 14:00~18:00
4차	2023년 5월 29일(토) 14:00~18:00
5차	2023년 6월 5일(토) 14:00~18:00
6차	2023년 6월 12일(토) 14:00~18:00
7차	2023년 6월 19일(토) 14:00~18:00
8차	2023년 6월 26일(토) 14:00~18:00
9차	2023년 7월 3일(토) 14:00~18:00
10차	2023년 7월 10일(토) 14:00~18:00

교육비: 무료 (교육자료, 장비대여료 별도)

신청처: 양양군서핑협회 (033-737-4023)

양양군,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

양양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난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 단열, 바닥, 창호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관내 저소득층 약 40가구에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등 사업으로 가



고, 향후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은 각각 1971년 및 1977년 개설

되어 태백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상근기자

구당 평균 242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이다.

단, 우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자, 2년 이내(2021년 ~ 2022년)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27일까지

최만식기자

화천군, '가격 장난 아닌 장난감' 화천에서는 맘껏 빌린다

화천군 직영 화천읍·사내면 장난감 대여소 인기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장난감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소가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017년 7월 사내면 사내종합문화센터에, 같은해 11월 화천읍 상리에 차례로 직영 장난감 대여소 문을 열었다.

현재 보유 장난감 규모는 화천 대여소가 631점, 사내 대여소가 712점 등 모두 1,343점에 달한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웬만한 장난감 가격이 5~1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화천군민들은 연회비만 내고 횡수 제한 없이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화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연회비 2만원만 납부하면 연중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비회원 군민은 대여비가 3,000원이다.

대여는 1회 2점 이내 가능하며, 세 자녀 이상일 경우 1점 추가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기간은 1회 당 14일 이내, 1회에 한해 7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원하는 장난감이 없다면, 대여소에 신청해 추후 구입이 이뤄진 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화천군 장난감 대여소의 운영은 철저한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여소는 영유아 개월 수, 어린이 연령대별로 적합한 신체, 언어, 음율, 조작, 탐구, 퍼즐 및 블록 등 각각 다른 기능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운영 노하우까지 더해져 개소 1년 후인 2018년 회원 수는 사내 대여소 230명, 화천 대여소 153명 등 모두 38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4월말 기준, 사내 대여소 회원은 637명, 화천 대여소의 경우 501명 등 모두 1,138명에 이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난감은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화천의 어린이가 누구나 걱정없이 마음껏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원주시장, 마약범죄 분쇄를 위한 집중 지도점검 지시

5월 한 달간 마약류 취급 업소 361개소 집중 점검

불법 마약 퇴치

마약 없는 원주시
건강 가득 행복 가득

악물은 꼭 필요시에만
정확한 용량!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용법으로!

악물 오·남용 예방

원주시보건소 ☎ 033-737-4023

원주시가 마약류 취급 업소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로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원주시는 5월 한 달간 마약류 취급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361개소다.

우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마약류 분실 폐기 신고 적정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인출고, 재고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주변 취약지역의 무료식품 제공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 경찰서 주관 불법 마약류 근절 합동단속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원주시장은 "마약범죄가 분쇄돼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원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마약류 취급 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지시했다.

김정환기자

정선군,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정선군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사업에 나선다.

4일 정선군은 정선우체국, 정선군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2023년 강원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업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정선군은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사업을 총괄하며 가구당 연 최대 10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작하여 정선군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정선우체국은 국제특급우편배

헌장접수 및 포장을 지원하며 소포 상자 및 생필품을 무료지원한다.

신원주 가족행복과장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250여가구의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게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봄과 소통에 힘쓰고 지속적인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천안시,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 지자체 '장관상 수상'

천안시가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정부포상은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적 기여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공헌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천안시는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22년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담 조직 신설·조례제정·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했다.

이러 아동권리 교육홍보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구성요소를 차근차근 추진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공헌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어린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을 위해 아동의 참여체제인 어린이기획단,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권리교육, 분과별 활동, 정책 제안 등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펼치고 있다.

또 아동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꿈과 행복을 누리는 어린이 전용 체험 공간인 '천안시어린이꿈누리터'를 운영 중이다.

아동의 보호권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조사 보디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고, 시내버스 광고 및 컵홀더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에 앞장섰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유기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아이 수호천사 돼주기' 모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등 취약계층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 중심의 시책을 운영하고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 '고소득새도전·행복' 우수 청년농부 50인 선정

'힘센충남 도지사와 우수 청년농부의 농담' 개최...인증패 수여·소통 등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일 보령시 청라면 소재의 한 스마트팜 농가에서 '힘센충남, 도지사와 우수 청년농부의 농담(農談)'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청년 농업인, 도와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인증패 수여, 사례 발표, 소통·공감 대화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청남도 우수 청년농부 인증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수립 추진 중인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을 대내외 알리고 창농하기 좋은 충남을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낸 '고소득' 분야, 새로운 기술·품종을 개발해 성과를 낸 '새도전' 분야, 도내 농촌에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



고 있는 '행복' 분야의 충청남도 우수 청년농부 총 50인을 선발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대상은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분야별로 △고소득 24명 △새도전 12명 △행복 14명을 선정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선발된 우수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국외연수와 동영상 및 사례집 등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우수 청년농부로 선정된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의 청년 스마트팜 사례 발표와 도지사·청년농부 간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지사와 청년 농업인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김 지사는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했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수 청년농부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더 많은 청년이 도내 유입돼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자의 역할을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 충남형 스마트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 등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돈 되는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마다 스마트팜 교육장·실습장을 설치해 농업 인재 양성 및 정부 지원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키는 청년 농업인 육성의 새로운 모형(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수 청년농부 50인의 사례는 도정신문의 기획보도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탕정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축하 인사 전해

박경귀 시장 "금빛 어르신 세대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쟁길 것"

4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탕정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 기념행사, 레크레이션 및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의미용 봉사활동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 했으며, 식전행사는 어버이 은혜 감사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함께 체험부스 운영, 초청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탕정어린이집 7세반 어린이들의 댄스 공연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물론 주민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언제나 청춘이고 소년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 뜻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제 어르신 세대는 실버 세대 말보다는 금빛 어르신 세대가 어울리



는 만큼 행복한 금빛 어르신 세대를 위한 건강돌봄센터 운영과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확대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전국 최고의 효도 시청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05%인 4만7243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이 1만4005명에 달해 노인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선8기 어르신들이 황금빛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효도 시청'을 특수 시책으로 정하고 올해 3월 찾아가는 금빛어르신돌봄미담 발대식 개최 후 운영중에 있다.

금빛어르신돌봄미담은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안내문 등기배달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복지등기 사업, 위기가구 발굴, 분야별 연계 서비스 지원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돌봄 안전망을 점차 확대 운영하는 시책이다.

김원호기자

음성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준비 시동

음성군은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토부에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수립될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음성군 노선은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번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실시하며, 조병욱 군수와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중부내륙선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수서~광주 노선 연결 시, 군에서 서울까지 직접 연결되며 군 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 서울 동부 지역의 공항 접근성 강화 등 우리나라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장차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으로 될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시 가정의 달, 고마운 마음은 공예 선물로 전하세요~

가정의 달 5월, 부모님부터 은사님까지 소중한 사람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공예 선물로 전하는 건 어떨까. 청주시한국공예관이 운영하는 뮤지엄숍이 오는 14일까지 '가정의 달 기념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할인 행사는 도자, 금속, 유리, 섬유, 가죽, 문구류 등 공예·문화상품 총 13개 분야의 1,4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까지 착한 가격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뮤지엄숍의 베스트셀러인 유리마루의 유리컵, 조명과 향기정원의 장식도자를 비롯해 생활자기와 장신구, 가방, 스카프, 트레이 등 다양한 품목이 선택의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할인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50명에게는 리유저블 텀블러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화재조창 본관 1층에 위치한 공예관 뮤지엄숍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비롯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한국공예관 2023.5.2. Museum 2023.5.14. Shop 뮤지엄숍 5월가정의달기념 할인행사

청주시 올해도 창고 대 개방, '주말예술창고'로 놀러오세요!

오는 15일까지, '몸 작업장'과 '손 작업장' 5월 참여자 모집

올해도 창고 대 개방! 새롭게 돌아온 '주말예술창고'에서 예술이랑 제대로 놀자!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동부창고가 '주말예술창고'를 열고 5월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주말예술창고'는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동부창고 꿈꾸는 예술터가 진행하는 '예술창작+놀이'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첫 선을 보였다. 예술가와 함께 생각하고 창작하며 놀이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1차례 운영에 4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한 '몸작업장'과 '손작업장', 2개 분야에 총 4개 프로그램을 7월까지 운영한다.

우선 '몸작업장'은 퍼포먼스·서커스 등 몸짓 분야 예술가들과 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술작업장으로 몸으로 만드는 예술품, 합·플(합!?)로 플레이) 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손작업장'은 드로잉·목공 등 시각·조형 분야 예술가들과 손으로 창작하고 놀이해 보는 드로잉 공화국, 어쩌다보니 자전거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의 '주말예술창고' 개방일은 20일.27일 오후 2시~오후 5시로,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회당 10~15팀을 모집하며, 팀 구성은 1명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4세 이상 최대 4명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5일까지 동

부창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예술교육·주말예술창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부창고 꿈꾸는 예술터는 "지난해 첫 시도부터 높은 참여도를 기록한 '주말예술창고'가 더 재밌고 색다른 예술경험으로 무장하고 돌아왔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동부창고에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교육콘텐츠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초대 말을 전했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주말예술창고'는 매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동부창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유치 열기 후끈

범군민결의대회, 엑스포 유치 MOU 체결 등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유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충북 영동군이 오는 26일 영동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 영동체육관광장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유치 기원 범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4만5000여 군민들의 단결과 화합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악엑스포 유치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군은 국내외 국악 관련 단체와도 성명서, MOU를 체결해 영동의 국악엑스포 유치에 대한 입지도 굳혀나갈 예정이다.

오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영동군⇔국악방송이 국악엑스포 추진 MOU를 체결하고, 26일에는 영동에서 열리는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CIOFF) 아시아 퍼시픽 섹터 회의에 참여한 14개국과 국악엑스포 유



치 성명서를 체결한다.

민간단체의 국악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도 뜨겁다.

5월에 있는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영동군 민족통일 청소년 문화제 △월류봉 돌레길 걷기대회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등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서도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전을 펼친다.

정영철 군수는 "세계국악엑스포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정말

뜨겁다"라며 "열망하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현재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행사 심사를 위한 정책성등급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 개최

진학교육 우수교 9교, 취업교육 우수교 6교 표창패 수여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수),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3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

표창 대상교의 교장 및 공로자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2023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던 고등학교를 선정·격려해 교육 현장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학 교육'과 '취업 교육'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모는 학교의 교육 실적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학 교육' 부문

은 포항제철고, 경산과학고, 경주고, 구미고, 경산고, 순심여고, 영양여고, 풍산고, 현일고 9교가 선정됐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부문은 경북생활과학고, 경북

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경북기계금속고, 경북조리과학고, 삼성생활예술고 6교가 선정됐다.

최우수교로 선정된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는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교육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이번 시상식의 의미를 더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시상식의 취지를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조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본부장 공홍두)와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의 안전한 실습실 구축·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안전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계고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학생과 교직원 대상 산업안전 보건 실무능력 및 역량 강화 ▲부산지역 학교 안전문

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 대상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운영, 실습실 안전시설 개선사업 대상 학교 방문 컨설팅, 교직원 대상 교육지원,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패트롤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안전 관련 최고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학교 안전 환경구축과 안전 문화 정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 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학교 저탄소 건물 전환 공동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4일 16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학교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학교 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학교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 학교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및 탄소흡수 시설 보급 협력 △ 대기오염 저감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협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기관과 연계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을 위해 주요 시설개선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서울시의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건물 대상 에너지 컨설팅과 에너지 성능효율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매년 건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냉난방시설을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사용으로 전환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흡수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분석과 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인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학교 냉난방 가스열펌프가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학교 건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로 증가하는 환경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광수기자

경기도교육청, 처방에서 예방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의 핵심 추진 내용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실현 목표이며, 세부 내용은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은 인성 함양의 결정적 시기에 맞는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유·초·중·고 인성교육과정 운영, 학교급별 인성교육 자료 보급,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 구축으로 인격 형성의 골든타임을 지원한다.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일상의 인성교육 울타리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생활 속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가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등이 울타리가 되어 인성교육을 튼튼히 보호한다.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는 경기인성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아버지 교육, 가족 체험형 인성교육 등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자녀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위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해중재단,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권역별 6센터, 경기인성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는 도교육청의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를 통합 지원하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게 핵심 목표다.

이와 함께 경기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협업도 이뤄진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하는 기본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원하며, 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 정책을 총괄 기획한다.

또 인성교육 실천유치원(마음이

유치원) 운영 공유회(6월) ▲인성교육 연계 놀이수업 자료 및 인성중심 경기도교육과정 개발(10월) ▲온라인 자녀교육 콘텐츠 제작·보급(12월)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12월) 등도 운영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처방식 인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경기인성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북교육청 굿센스,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협력돌봄

고아초, 고아지역아동센터 연합 굿센스 참여 기관, 교육부 관계자 방문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수), 교육부와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관계자 6명과 함께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구미 고아초등학교와 고아지역아동센터 방문했다고 밝혔다.

굿센스 사업은 지난 2017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어온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11개 시군의 초등학교 31교, 지역아동센터 3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사업에 참여해 방과 후 방학 중, 또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 학생들에게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한다.

고아초와 고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굿센스 돌봄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추진되는 굿센스 사업 또한 학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모두 함께 만드는! 전남형 미래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이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관리 및 대상학교 선정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전달하고, 사업 추진사항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간소화된 사업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교육부 검토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사전기획의 중요성과 신중한 대상학교 선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강화해 사업계획을 내실화하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집행·정산 방법 등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계완료된 사업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이사, 철거, 석면제거, 공사착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학로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를 추진할 경우 체계적 관리·감독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자 상주와 CCTV설치 의무화도 안내했다.

김중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협의회는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 협의의 자리이다"면서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내실있게 적기에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개그우먼 홍윤화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그우먼 홍윤화를 신규 홍보대사로 4일 위촉했다.

홍윤화는 인천 부평여중, 부개여고를 졸업했으며 2008년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2014년·2016년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이력을 보유한 인기 개그우먼이다. 방송을 통해 평소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그는 흔쾌히 이번 홍보대사 요청을 수락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로 공익캠페인과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활약할 예정이며, 향후 활동은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소개된다.

홍윤화는 "부평여중을 거쳐 부개여고를 졸업한 '인천의 딸'"이라며

"어릴 때 인천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꿈을 키웠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의 수많은 후배가 좋은 교육을 받고 인천을 빛내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홍보대사가 아이들에 끼치는 영향이 커 부담스러운 역할임에도 기꺼이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홍윤화 대사를 통해 많이 웃으며 내면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충남도, “태안을 ‘해양치유산업 메카’로”

김태흠 지사,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태안 방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2일 태안군을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태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태안 발전을 위해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도가 주최하고, 내년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0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으로 잡았다.

도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 생산·소비 모두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화훼산업과 생산·마케팅 등 전후방연계가 미흡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채소·과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도내 농생명 자원의 브랜드와 국내외 인지도 제고, 서해안 지역 원예·치유 메카 육성, 지역 자원 융복합 체제 구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제고 등도 박람회 개최 목표다.

도는 지난달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국제공인 획득 등 성공 개최 추진을 위해 태안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 159.85km²에 1577억 원을 투입해 생태 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정원에는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해양문화예술섬 등이 들어서 새로운 명품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 지사는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국내 최초의 해양정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프로

그램 운영 종합시설이다.

사업비는 국비 170억 원을 포함, 총 340억 원으로, 2024년 5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해수 풀과 테라피실, 마사지실, 피트니스, 스포츠 등 다양한 해양 치유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며, 건강 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 시설도 갖춘다.

주변의 울창한 해송림과 아름다운 백사장을 활용한 야외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굴포천하역사관광문화 개발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소근 2리 용수로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깨끗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한 태안을 해양 치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태안 발전과 충남의 비상을 힘차게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김 지사가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태안군민들은 23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5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장기검토, 1건은 수용관련 과제로 넘겼다.

군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 현장 방문은 국도38호 가로림만 해상교량(태안 이원~서산 대산) 건설 대상지 확인을 위해 이원면 내리 만대항에서 가졌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바다로 막힌 만대항을 서산시 대산을 독곶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65km, 접속도로 2.96km, 총 연장 5.61km이다.

추진 시 총 사업비 3113억 원 전액은 국비로 투입한다.

도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곧바로 태안반도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국도 38호선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 국도로 승격되며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4일 보령시에서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북 중소기업 9개사,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지난해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경북도 기업 9개사 선정

경북도는 도내 기업 9개사가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에 선정되어 4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지정서 수여식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강소단계 선정 기업 19개사(경북 9, 대구 10) 대표 및 임원, 지자체 관계자, 혁신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해외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으로 각각 운영되던 지정제도를 통합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이다.

프로젝트는 기업을 수출규모별 4개 트랙(유망→성장→강소→강소+)으로 나눠 운영하는데, 이번 지정서



수여 기업은 세 번째 트랙인 강소단계 지정 기업으로 지난해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경북의 지정 기업은 △하나섬유(성주) △세원하이텍(칠곡) △영진(영천) △서원테크(경산) △주식회사 보근(경산) △중원산업(경산) △호성에이비오(경주) △제이앤코슈(경산) △경림테크 주식회사(경산)이다.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현지화에 대응하는 제

품 개발 등 구체적 수출 다원화 전략을 제시해 세계 시장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이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9개 기업은 내년 말까지 13종의 해외 지원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경북도의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홍보·광고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강소단계 선정기업은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가능성은 많다”면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중기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전시 방산·강소기업 6곳과 815억 원 투자협약

안산첨단·서구평촌산단 입주 예정... 2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대

대전시는 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방산기업 4개사와 우수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2개사 등 총 6곳과 81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4월 24일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 선두주자인 'SK온'과 체결한 4,700억 원 규모 투자와 5월 3일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 '머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은 최대 성과로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대전시의 전방위적 활동이 속속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그린광학 조현일 대표, 네스랩㈜ 이재호 대표, ㈜디지트론 이종국 대표, ㈜지디엘시스템 권준홍 대표, 센시㈜ 서인식 대표, 의성산업㈜ 오명진 대표가 참석했고,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협약에 참석한 기업들 들여다보면 우선 방위산업 기업 4개사가 안산첨단·국방산단에 약 440억 원을 투자해 이젠 또는 신설하게 된다.

㈜그린광학은 방산, 위성, 산업용 등에 쓰이는 다양한 광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네스랩은 실시간 군과학화(훈련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로서, 다수의 국방무선통신시스템과 과학화 훈련시스템을 개발, 납품하는 기업이다.

㈜디지트론은 수도권 기업으로 유도기기 분야 특화를 바탕으로 전자전, 통신 부문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지디엘시스템은 전술데이터링크 전장관리 유무선통신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 등을 다루는 방위산업 협력기업이다.

그밖에 센시(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콘텐츠와 세계 유일의 인공지능(AI) 기반 시각장애 콘텐츠 개발한 전문기업으로, 현재 대전, 서울, 경기도 분산된 사업장을 신동지구에 통합 이전하기 위해 321억

원을 투자한다.

의성산업(주)은 통기성 필름 제작 특허기술 보유와 친환경 포장지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145억 원을 투자해 서구평촌산단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별로 유망기술 등을 설명하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잠재력이 대전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신속 공급 등을 통한 지속적 기업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6개 기업 대표들도 “방위사업청 이전과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 등 국방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에서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통한 대전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6개 기업 협약에 따라 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글로벌 기업도 인정한 GS E&S 신기술 국내외 러브콜 쇄도

행하며 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까지 해 기술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혁신기업 육성프로그램인 기보 벤처캠프 기업으로 지정되어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전문화된 육성프로그램을 거쳐 기술을 선도할 역량을 가진 스타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굴뚝 없는 소각장 시스템으로 알려진 GS E&S의 기술은, 적용 배출시스템의 최종 측정 지점에서, 포집대상 유해물질이 5N(99.999%)수준에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본격적인 창업 패키지를 넘어 기술 혁신기업으로 탄소중립 시장에 접근하겠다.”라고 밝힌 김 대표는 “환경 오염물질 ZERO화 기술은 창업하기 이전부터 부사장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현장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기술에 대한 확신을 했다. 20여 년간 소각로 개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로 미국 M사에 근무했던 부사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말했다.

이러 김 대표는 “일본기업을 비롯

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이전 및 협업을 요청하는 문기가 쇄도하고 있으나, 한시적이고 전략적 동맹 형태를 뛰어넘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원, 시장 경험과 GS E&S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윈-윈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GS E&S 신기술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기 배출 기준인 DUST(10), SOx(10), NOx(42.5), CO(50), HCl(9.6) 등 대기 오염물질 20개 항목 전부 허가 배출 기준 내 배출되고 있는 기존기술 대비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초미세먼지,유해가스류:환경부 지정오염물질)의 환전 포집 통제 방식으로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특정 24종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진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크롬, 수은,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아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대기 오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GS E&S는 석탄화력발전 설비에 굴뚝 없는 소각로 기술 적용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일을 이끌어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최정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수소ANSWER(수소앤써) 시즌2'를 5월 4일부터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한다.

수소앤써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시작한 산업부의 영상 콘텐츠로 그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 31.6만 회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 관련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전문가 토론·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던 수소앤써 시즌1에 이어 이번 수소앤써 시즌2는 수소경제의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특히, 수소생산기지, 수소출하센터, 액화수소 플랜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전국의 수소경제 기반 시설과 다양한 수소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수소경제 현장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시즌2 첫 화에서는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와 수소생산시설이 구축된 인천 수소생산기지(인천그린충전소) 현장을 소개했으며, 동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박사, 인천그린충전소 송민규 대표가 함께 출연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인천 수소생산기지의 의미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공정 흐름, 관련 설비 등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수소앤써 시즌2는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외에도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서 연재되며, KTV 국민방송에서도 방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과 정책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소앤써 시리즈 등을 통하여 국민이 수소경제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양군, 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광폭행보 이어가다

- 영양군, 군정 사활을 걸고 양수발전 유치에 올인해
- 영양군수의 '눈물겨운 열정'에 군민들 감동받아 너도나도 유치대열 동참해

영양군이 양수발전 유치를 위해 연일 광폭행보를 펼치며 군민적 공감대를 모아 가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해 7월부터 영양양수발전소 유치에 박차를 가해 서울-세종시-도청을 안방마냥 누비며 영양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면서 반드시 이번 9월에 있을 양수발전소 유치 발표에 영양군을 필히 포함시켜 줄 것을 전국민들에게 호소해 오고 있다. 이런 그의 눈물겨운 열정에 영양군민들이 너도나도 발벗고 나서 양수발전만이 '영양군의 살길'이란 캐

론인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3일 8시, 영양 법원 사거리에서 영양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영양양수발전 건설 유치를 위한 피켓 홍보전을 펼쳤으며, 이날 오전 11시, 입암면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수발전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일 11시, 영양읍 2층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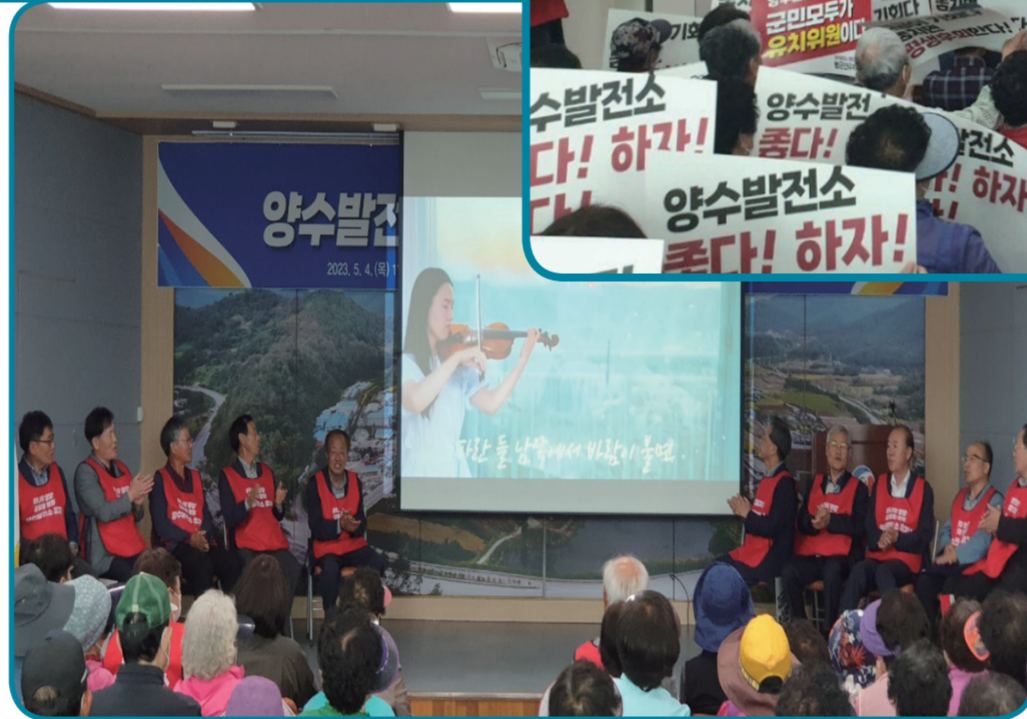
반드시 살리겠다"면서 "반드시 우리 영양군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며 강력하게 호소했다." 특히 손상득 양수발전 특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구감소는 영양을 떠나야 하는 위기이다" "우리가 영양을 지키는 길은 영양군이 반드시 양수발전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나 감동적인 장면은 주민복지과

이어 김국현 입암면 양수발전유치위원장의 선창으로 힘찬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마지막 으로 고향의 봄 자막영상을 보며 고향의 봄을 노래하면서 가슴속에 용솨를 치는 뜨거운 감정이 폭발쳐 울을 느끼게 했다. 이날 있었던 영양군 양수발전유치 결의대회는 인구소멸위기 1호군이자 군소멸위기에 처한 영양군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도 그 어떤 것보다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영양군민 모두가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나간다면 영양군이 소원하는 꿈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해오며 하루속히 영양군이 추진하는 영양양수발전유치의 꿈이 이뤄져, '변화발전하는 영양' '부자영양'으로 우뚝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치프레임을 내걸고 양수발전 유치를 위해 힘껏 뛰고 있다. 지금 이곳 영양군의 분위기는 골목골목, 길길마다, 사업장 등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영양양수발전 유치란 현수막이 걸려 있고, 마을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등 곳곳마다 2~3인이상이 모여 어김없이 양수발전 유치 얘기가 서로 튀어 나올 정도로 양수발전은 반드시 이곳 영양군에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양군은 치밀한 양수발전계획을 벌써 수립하고 채국채국 양수발전 유치를 힘 모아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여오고 있다. 지난 달 27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언

의실에서 오도창 영양군수 양봉철 영양농협 조합장, 영양양수발전 관계자와 각읍면동 주민들 5~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나의 영양! 모두의 염원'을 슬로건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영양읍민 결의대회가 성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두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구호제창,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오도창 군수 대화사와 양봉철 농협조합장, 영양노인회 안재범 회장 등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도창 군수는 대회사에서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반드시 양수발전을 유치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인구소멸위기군을 탈피해 영양을



에 근무하는 정지윤 공무원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호소문은 뜨거운 감정을 용솨를 치게 해줬다. 그녀는 "외지에서 이곳 영양으로 돌아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다, 이번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영양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영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역설해 자리를 가득메운 모든분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기원드려 본다. 한편, 이와같은 결의대회는 계속해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치러질 계획이다. 5월 8일 석보면, 5월 9일 일월면과 청기면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며,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시작되는 5월 11일 15시, 영양읍 복개천 메인무대에서 영양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군민 모두의 염원을 하나로 묶는 '범군민 결의대회'가 계획돼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민체육대회, 군민 소통·화합의 한마당

- 입장식, 명랑운동회 개념의 100m달리기 등 육상종목과 단체경기 진행돼
- 경기후 군민화합한마당 노래자랑과, 지은이, 우연히 등 초청가수 공연 펼쳐
- 윤경희 군수, "5년만에 개최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혀



'산소카페 청송군'은 지난 2일,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청송읍, 진보면, 현서면, 주왕산면, 파천면, 안덕면, 부남면, 현동면을 포함 8개읍·면민들이 참석해 열띤 경기와 함께 소통·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펼치며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는 청송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전국청송군향우회연합회 등이 후원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는 각 읍·면 입장식을 시작으로 400m 이벤트 계주, 400m 계주, 100m 달리기 등의 육상종목, 보드 레이스, 단체줄넘기, 어르신체육경

기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고, 체육경기가 끝난 후에는 "군민화합한마당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입장식에서는 각 읍면이 준비한 입장식 컨셉으로 참여한 청송군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청송군체육회는 각계각층에서 들어 온 푸짐한 경품들을 경기 중간중간 행운권추첨을 통해 선물들은 나눠주었으며, 각 읍면에서는 신나는 풍물놀이패로 한껏더 체육대회 흥을 돋아 주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각 읍·면 대



펼쳐져 군민체육대회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매우 뜻깊은 의미있는 체육대회로 치러졌다. 또한, 이번 청송군민체육대회는 계주 등 각종 체육활동은 물론, 군민화합한마당 노래자랑

래자랑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박광태(남, 파천면 소재)씨가 차지했으며, 상장과 상패, 상금 50만원(청송사랑화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화합의 장인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가 오랜만에 개최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됐다"며, "모쪼록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화합하며 즐기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청송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의 우승, 준우승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컨셉으로 종목별 읍면대항으로 치러, 마치 명랑운동회를 개최하는 듯한 다채로운 컨셉의 프로그램으로

과 지원이, 우연히 등 초청가수 공연까지 더해져 참여한 군민 모두가 함께 단결하고 화합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참고로 이날 '군민화합한마당 노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약 단속 강화 및 신속 예방 시스템 구축 촉구

김 의원, “마약 범죄 늘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에 발생하는 마약 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향후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과 현장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고, 악의적으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의 사고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마약에 대한 위협성을 강조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동시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여태까지 소홀히 한 잘못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

청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 및 지역에 시민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주최/주관 하는 행사에서 행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마약범죄 사전 예방활동과 현장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안과 밖에서 우리 학생들과 사회 내 모든 서울시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곳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인천특사경,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6주간 45개소 점검... 준수사항 위반 3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업과 더불어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축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



▲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생산중인 축발

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

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이번에도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 업소 단속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업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

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달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 “분리배출 지켜주세요”

시·부산환경공단·주민 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광역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내 폐기물반입 차량 단속 추진

부산시는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은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를 반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이외에도 시는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

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척실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제 35회

고양행주문화제

2023. 5. 19. 금 ~ 21. 일 3일간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산성 일원

드론불꽃쇼
“그날의 불”

5. 20. 토
20:30

행주산성역사공원
수상무대

행주대첩
박 러트리기 대회

5. 20. 토 ~ 21. 일

행주산성역사공원 내
투석전 경기장

뮤지컬
“행주대첩”

5. 21. 일
19:00

행주산성역사공원
메인무대

수상
불꽃놀이

5. 20. 토 ~ 21. 일
20:50

행주산성역사공원
한강수상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행주, 당신의 일상에 '돌'을 던진다

마케팅

주최 | 고양특례시

주관 | 고양문화재단

문의 | 1577-7766 www.artgy.or.kr www.hjfestival.or.kr

어린이를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OUT... 디지털 성범죄 예방인형극 개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어린이날 맞아, 5월 4일,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생활 속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교에서도 집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우리 아이, 과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까?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70.9%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은 성적 언어/성적 이미지 전송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며(56.4%), 성적 거러를 요구받거나(4.3%),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는(3.8%)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3월 개소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형극 ‘포토왕 여름이의 초등생활: 사진을 찍을 때, 울릴 때 허락이 필요해!’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놀리는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동의 없는 촬영 및 사진 공유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19:00~19:30) 당일 방문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은 재단 유튜브에서 7일간 온라인으로 인형극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5.4.~5.11.)

체험 부스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즈 재료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슬로건을 넣은 케링을 만들어 보는 ‘나는야 케링 메이커!’와 함께,

초등학생 양육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OX 퀴즈 맞추기 ‘퀴즈 & 플레이’가 운영된다. (17:00~19:00)

이 외에도 놀이배움터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아동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도서를 읽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의견 게시판을 꾸며 볼 수 있으며, 풍선 아트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양육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약속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한다.

카드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의하지 않은 촬영과 유포는 ‘장난’이 아닌 ‘범죄’라고 알려주세요.
- ② 친구 사이라도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 ③ SNS, 게임 등에서 만난 친구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 ④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의 프로필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세요.
- ⑤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 ⑥ 개인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 ⑦ 자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⑧ 위촉되어 있을 아이를 안심시켜주세요.
- 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 ⑩ 전문 지원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 증가 및 온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는 요즘,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

방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5월 5일과 5월 6일에 스페이스 살림에서 ‘따로, 또 같이 마음 힐링 프로젝트’를 주제로 5월 가족 페스타를 개최한다. 양육자와 어린이가 즐기는 체험 행사,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5월 5일에는 ▲육아 전문 멘토와 양육자가 육아 공감의 시간을 갖는 감성코치 힐링강연 ‘내 마음이 도란도란’ (11:00~13:00)과 ▲좋아하는 동물 쿠키와 케이크를 만드는 어린이 요리교실 ‘동물원 케이크 만들기’ (12:00~15:00)가 진행된다.

5월 6일에는 ▲어버이날 카네이션 화분 케이크와 제철 과일 에이드를 만드는 ‘어버이날 선물 요리 만들기’ (12:00~15:00) 등이 준비되어 있다.

도심 속 작은 휴양지로 꾸며질 스페이스 살림의 옥상 무대 ‘가족 힐링 캠프’에서는 책 읽기, 만들기 체험, 춤 등을 할 수 있는 서가존, 리딩존, 참여존이 운영된다.

가족 인생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볼 수도 있다.

가족 페스타 양육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들은 스페이스 살림의 서울엄마아빠VIP존에서 ‘(영유아 대상)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양육자와 아동,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송파구, 2023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개최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평가 우수단지 인센티브 제공



송파구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실질적인 감량을 도모하고자 ‘2023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 기여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105개 공공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는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곳을 대상으로 한다.

대회는 세대수 기준으로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4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400세대 미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

로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세대별 평균 배출량, RFID종량기 관리실적, 자체 홍보 실적 4개 항목을 평가한다.

구는 평가 결과, 총 12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인증패 수여, 시설설치 지원금 지급, 노후RFID종량기 교체 지원 등 지난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개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에 전체 123개 단지 중 총 33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대회기간 배출량과 대비해 47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며 공동주택 평균 감량율은 12.8%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강식 송파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에 구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규식/기자

서대문구 어린이날, 어린이날 비가 와도 즐겁다

서대문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5일 강한 비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에서 여러 어린이 행사를 연다.

LED 퍼포먼스 공연, 골뎀 문화놀이, 3D트릭아트 사진찍기, 피어로와 함께 풍선만들기, 스마트 VR 체험, 자유롭게 낙서하기, 키즈헬스케언터 체험, 풋살 원데이 클래스, 렛스 펌핑 업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포토스팟, 빨리빨리퀴즈, 읽어라읽어라, 누가누가 더 잘하나, 그다음은?, 행운아 나와라 등 모두 6가지 이벤트가 준비되며 참여할 때마다 받은 코인을 모아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 마음에 드는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날 휴제천 번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서대문구 어린이축제’는 행사 당일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취소됐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5월 5일 비 예보가 있어 어린이들의 실망이 크겠지만 실내 행사를 통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영등포구, 생활 속 악취와 전쟁 선포

생활 속 하수도, 악취 유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영등포구가 생활 속 하수도, 악취 유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악취 저감 사업을 시행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문래파라곤 오피스텔 일대에 ‘악취 발생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수맨홀에 하수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악취를 24시간 측정한다. 이후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악취 원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여의도역 주변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빗물받이 469개소에 ‘탈취제 투입’에 나선다. 우기를 제외하고 주 1회 이상, 1~1.5L 인체에 무해한 탈취제를 투입해 악취 발생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악취 발생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공기공급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도 실시한다. 구는 예산 2,25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 비용의 90%, 1세트 기준 207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하수



악취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정화조의 근본적 악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개 전 동 주민센터에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 5명씩 총 90명의 요원을 하여 하수시설, 폐기물 적치 등 동별 악취 발생원을 모니터링한다. 요원에게는 월 1회, 2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2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도장시설 198

박황신/기자

은평구, 베트남 후에시와 활발한 행정·문화교류 실시

은평구, 40여 명 규모의 민·관 대표단 구성하여 후에시 방문

서울 은평구는 베트남 문화교류 대표단을 구성해 후에시 전통공예 축제 및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 은평구태권도협회, 갈현청소년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후에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후에시장 초청으로 추진됐다.

대표단은 후에시청을 방문해 부시장을 만나 이번 방문이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축진제가 될 것을 약

속했다. 후에시가 주최하는 국제도시 환경오찬에는 베트남, 후에시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베트남, 일본,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총 6개국 이 참석했다.

저녁에는 6개국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은평구는 은평구태권도협회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공연과 갈현청소년센터 K-POP 밴드팀의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최만식/기자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더불어!’ 관악구, 2023년 ‘ESG 아이디어 공모전’ 열어

생활속에서 ESG 실천 아이디어 5월 한달간 공모... 최대 100만 원 상금

관악구가 5월 한 달간 ‘미래를 꿈꾸는 도시, 관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3년 ESG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구는 지난 2월 ‘관악형 ESG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에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E-환경(기후변화, 탄소중립,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S-사회(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역안전 등) ▲G-거버넌스(주민자치, 민·관 협력, 공직 문화 개선 등) 3가지 분야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며 연령제한 없이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관악청에 게시된 제안을 작성해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평가해 오는 8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ESG 실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더(The) ESG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상상캠퍼스, 어린이날 맞이하여'동심을 상상해'봄" 실내 개최

우천으로 인하여 공간1986 실내로 전환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의 어린이날 행사 '동심을 상상해'봄"이 오는 5월 5일 개최된다.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 체험, 공연, 플리마켓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실내에서 운영된다. 공간1986 멀티방에서는 공연 '동심몽글 버스킹'이 총 2부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된다. 공연으로는 익스트림 벌룬쇼, 요들송 버스킹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기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퍼니우쿨렐레', '오하나홀라'의 공연 역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상영회 '동심몽글 시네마'가 총 3회 진행될 예

정이다. 애니메이션 상영은 5월 1일 15시부터 지시시뮬버스를 통한 사전접수로 운영되며 잔여석, 노쇼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플리마켓인 '동심몽글 마켓&체험'도 공연과 영화 상영이 진행되는 '공간1986' 로비에서 함께 진행된다. 교육 키트, 디자인 소품, 업사이클 액세서리 등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며, 일부 부스에서는 라탄 공예, 업사이클, 슈링클스 등을 다룬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그밖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입주단체 '트리플레이' 주관 '신나는 트리플레이 체험'은 우천 예보로 인하여 5월 7일로 연기하여 진행된다. 조혜영/기자

대전시, 세계 천식의 날 기념 예방·관리 캠페인 전개

대전시와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5월 4일 목요일 대전어린이회관에서 '세계 천식의 날'을 기념하여 천식 예방·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 2023년 5월 2일)은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세계 천식기구(GINA)와 유럽호흡기학회(RRS)가 주관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후원하여 매년 5월 첫째 주 화요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2023년 세계 천식의 날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천식 치료(Asthma care for All)로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천식 환자뿐 아니라 일반 대전시민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어린이회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요즘 같은 봄철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화분)와 황사는 천식 환자를 괴롭히는 주범으로 천식 환자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천식 환자는 천식 흡입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꽃가루 및 황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집안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회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천식의 관리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소책자, 리플릿 등 천식 예방·관리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어린이회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OX 퀴즈, 뽀빠이 딱지 만들기, 어린이날을 위한 캐릭터 밴드 배포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실시하며 천식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정은희 센터장은 "봄철 꽃가루와 황사로 어려움을 겪는 천식 환자와 대전시민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천식치료' 슬로건으로 대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 방법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 시작 관람객 맞이 '1호 관람객'은 누구?

1호 입장 관람객 기념품 증정 및 기념촬영



경남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가 4일 하동스포츠파크와 화계면에 있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오전 9시 30분 엑스포 1행사장 주게이트에서 개장식을 진행했다. 개장식에는 하승철 하동군수, 강민국 국회의원, 이하옥 군의회 의장,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 이명우 범민지원협의회장, 홍만수 하동차생산협회의장, 박숙순 조직위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테이퍼커팅과 함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뒤이어, 조직위는 이날 엑스포 1호 입장객에게 기념품으로 차다기세트를 전달했다. 1호 입장객 박미란씨는 필리핀 국적으로 "평소 하동차에 관심이 많아 아침 일찍 엑스포장을 찾았는데 뜻밖에 1호 입장객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승철 공동위원장은 개장식에서

"이번 엑스포가 하동의 차를 엑스포장에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훌륭한 차를 즐기는 기회를, 축제에 참가하는 차 생산국 및 관련 업계에는 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차 생산농가에는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여 기업 간 거래와 전시, 체험, 학술대회, 공연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는 차 천년관, 녹차의 의학적 효능을 소개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복합관 등 풍성한 볼거리 및 체험 등을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장재현/기자

경북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 K-POP댄스, 버블아트쇼 등 다채로운 체험·축하공연 열려
- 어린이는 세상의 주인이며 희망! 어린이가 마음껏 꿈꾸는 세상 만들어야

경북도는 지난 5일(금),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경북도청 동락관과 천년숲 일원에서「어린이날 기념식」과「어린이날 큰잔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아동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고, 도청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200여명이 함께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백한 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우리들은 자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를 시작으로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 어린이 댄스팀 공연과 버블아트쇼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접목돼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특히 기념식 중간에 영상을 통해 아동 출신 권정생 동화작가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생전 작가가 지니고 있던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작가의 인생과 작품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큰잔치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POP 댄스, 벌룬매직쇼 등 축하공연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지진체험 버스, 즉석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린이들은 세상의 주인이며, 희망이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 경북의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는 23개 시군 전 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행사를 통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윤근수/기자

지를 선물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큰잔치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POP 댄스, 벌룬매직쇼 등 축하공연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지진체험 버스, 즉석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린이들은 세상의 주인이며, 희망이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 경북의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는 23개 시군 전 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행사를 통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윤근수/기자



용인특례시, '2023 어린이날 대축제' 정상 운영

어린이날 비 소식에 시청광장에서 청사 내로 장소 변경



용인특례시가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마련한 '2023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를 시청광장에서 용인시청 실내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연휴 기간 중 비 소식이 예고돼 각종 어린이날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용인특례시는 청사 내부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선보였다.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는 '신나용! 조아용! 안전해용!'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다만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인파가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센터와 장애인 쉼터 운영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 어린이날 축제 공연과 체험행사는 시청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마련됐다. 축제 선연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열리는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는 ▲풍선 대통령 ▲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뽕쌌어?

▲블랙벨트 태권도 공연 ▲코미디 Escape 마술쇼 ▲용인 청소년 국악단 공연 ▲어린이 음악출범기 ▲수도군단 7673부대 특공무술 시범 등의 공연이 열린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소화기분사체험 ▲VR가상체험 ▲심폐소생술 등 안전과 관련된 체험행사는 3층 컨벤션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시청 2층에서는 ▲형광인형 디자인과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 체험행사와 용인시캐릭터 굿즈 판매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청 1층에는 종이팩 자원회수 캠페인 행사장과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비 소식으로 인해 야외행사 진행이 어렵지만 용인시 청사는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 장소를 변경해 행사를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어린이날을 맞이해 열리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거창문화재단, 이은결 'MAGIC & ILLUSION' 공연 전석 매진

(재)거창문화재단은 오는 13일 토요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선보이는 이은결의 'MAGIC & ILLUSION' 공연이 현장과 온라인 동시 예매 시작 1분 만에 2회 공연이 '전석 매진'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내 최고의 마술사 이은결이 자신만의 독특한 연출 '일루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증강현실', '마임', '드로잉'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새롭게 시도해 관람객에게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재)거창문화재단은 5월 가정의 달 기획공연으로 어린이 뮤지컬 '시크릿 지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은결 매직쇼', 클래식과 뮤지컬, 대중음악을 선보이는 '조이 투게더'를 야심차게 준비했으며, 세 번째 공연인 클래식 콘서트 '조이 투게더'는 5월 19일 금요일 10시부터 예매 가능하다. 공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거창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병철/기자

충북도,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 다채롭게 열려

청남대 개방 2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진행

제101회 어린이 및 어린이주간(2023. 5. 1. ~ 5. 7.)을 맞이하여 5월 4일 도내 시·군·구 아동 등 200여명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청남대에서 펼쳐졌다. 충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 지역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볼록축제 '영춘제'와 '모네&르누아르&반고흐 특별 기획전' 등 다양한 볼거리도 풍성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복한 꿈을 키우는 충북 어린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색다른 공연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태권도공연, 치어리딩, 버블쇼 공연에 많은 박수를 보냈으며 무드등 만들기, 테이프공 만들기 등 체험활동에도 참여하고 대형 에어울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4개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대처법 및 신고의식과 아동의 4대 권리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어린이들과 '희망의 박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으며, 대화의 시간에서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별 장이었던 청남대가 우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2003년 개방된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도지사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image: Freepik.com". This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